



S-OIL MAGAZINE
July 2015

Vol. 404

07

04 주요 경영활동 · CEO 동정
S-OIL 챔피언스 인비테이셔널

34 내 마음의 미술관
전남도립 옥과미술관

36 섬을 걷다
군산 선유도

46 햇살나눔
주유소사회봉사단 활동



S-OIL 챔피언스 인비테이셔널



군산 선유도



04 주요 경영활동 · CEO 동정

- S-OIL 챔피언스 인비테이셔널
- 멸종위기 천연기념물지킴이 캠페인 발대식
- 순직 해양경찰 유자녀 학자금 지원
- 구도일 캐릭터 마케팅 전략적 제휴
- TV-CF '채우세요' 시리즈

12 단신

- 친환경 쌀 생산을 위한 우렁이농법 시연행사
- 유류수송차량 운전자 안전작업복 전달
- 과학문화재단 앙코르코리아 사업단 에티오피아 강 수질 개선 프로젝트 참여

통권 제404호

발행일 2015년 7월 3일

발행처 에스-오일주식회사 광고팀

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백범로 192

홈페이지 www.s-oil.com

E-Mail sabo@s-oil.com

편집 · 디자인 (주)디자인소호 02-514-5164

인쇄 (주)성환인쇄 02-2273-0583

15 포켓 석유상식

- 최초의 석유

16

두런두런 수다방

- 사칠리아 여행
- 이탈리아 여행
- 지리산 가족산행
- 산악자전거 라이딩
- 탁구동호회 모임
- 도서 감상 · 추천
- 페트로라비 공장 교육생 한국체류기

26

열정 24시

- 환경팀 최재우 사우
- PX생산과 임인홍 사우

28

No.1 주유소

- 순천 햇살주유소



30

가족 이야기

- 그저 함께 있으니 좋아요
- 제주저유소 김종민 사우 가족

32

연료 1리터 나들이

- 울산 십리대숲길

34

내 마음의 미술관

- 전남도립 옥곡미술관

36

섬을 걷다

- 신과 자연,
인간의 열망이 어우러진 이상향
- 군산 선유도



40

100세 습관

- 걷는 자세 습관

42

나의 롤모델

- 젊음을 무기로 도전하는 열정가
'마크 저커버그'
- 시설투자기획팀 김관희 사우

44

열린 서재

- <창문 넘어 도망친 100세 노인>
요나스 요나손



46

햇살나눔

50

독자엽서

S-OIL 챔피언스 인비테이셔널

전통으로 빛나는 골프 축제

제9회 S-OIL 챔피언스 인비테이셔널 골프대회가 지난 6월 14일 전인지 선수의 2연패로 막을 내렸다. 우리 대회만의 전통으로 자리매김한 성화 개회식에서 구도일이 제주도 전역 성화 봉송을 펼쳐 재미가 한층 배가됐고, 우승자뿐 아니라 2위, 3위 선수에게 메달을 수여하는 시상식도 지속됐다. 올해 한국여자프로골프(이하 KLPGA) 투어 대회 중 최고 시청률을 기록한 S-OIL 챔피언스 인비테이셔널은 전통과 역사를 자랑하는 KLPGA 투어의 주요대회로 입지를 구축했다.



올 시즌 KLPGA투어 열한 번째 대회인 '제9회 S-OIL 챔피언스 인비테이셔널(총상금 6억 원, 우승상금 1억 2천만 원)'이 6월 12~14일 엘리시안제주 컨트리클럽(파72/6천625야드)에서 개최됐다.

대회 첫날 1라운드에서는 올해 데뷔한 신인 인주연(롯데마트) 선수가 버디 9개, 보기 2개로 7언더파 65타를 기록하며 6언더파 66타를 친 공동 2위 허윤경(SBI저축은행)·김다나(ABC라이프) 선수를 1타 차로 따돌리고 단독 선두에 올랐다. 시즌 3승과 상금 1위 탈환을 노린 전인지(하이트진로) 선수는 이날 4언더파를 치며 공동 6위에 머물렀다.

바람이 심하게 불었던 둘째 날 2라운드에서는 허윤경 선수가 보기 4개와 버디 4개를 맞바꾸며 이븐파를 기록해 중간합계 6언더파 138타로 단독 선두에 올라섰다. 보기 2개를 범했지만 이글 1개와 버디 1개를 잡아낸 전인지 선수는 선두를 단 1타 차로 추격하며 김보경(요진건설) 선수와 함께 공동 2위에 자리했다. 한편 1라운드 선두였던 '루키' 인주연 선수는 부담감을 떨치지 못하고 6오버파를 기록하며 함께 1언더파 143타로 공동 11위로 떨어졌다.

마지막 날 3라운드에서는 허윤경·전인지·김보경 선수가 챔피언 그룹으로서 18번 홀까지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경기를 펼쳤다. 전인지·허윤경 선수가 초반에 각각 버디 3개와 2개를 잡으면서 전반 9홀을 마쳤을 때 허윤경 선수 9언더파, 전인지 선수 8언더파, 김보경 선수 7언더파를 기록 중이었다. 하지만 후반 들어 허윤경 선수가 11번과 14번 홀에서 보기를 적어내며 파 세이브를 이어간 전인지 선수와 15번 홀(파5)에서 버디를 잡은 김보경 선수에게

공동선두 자리를 내줬다. 그러나 김보경 선수가 17번 홀에서 보기를 기록함에 따라 끝까지 파 세이브를 유지한 전인지 선수가 결국 최종 합계 8언더파 208타(68-71-69)로 우승 트로피를 품에 안았다. 더불어 전인지 선수는 우리 대회 역사상 최초로 2연패를 기록하는 영광의 주인공이 됐다.

전인지 선수는 “지난 한 주 쉬는 동안 단 한번도 클럽을 잡지 않았다”며 “잠도 많이 자고 과일이나 야채를 먹으며 비타민을 섭취한 게 컨디션을 끌어올리는 데 도움이 됐다”고 우승의 배경을 분석했다. 또한 “포토콜을 촬영하며 삼성혈에서 성화 채화식을 가졌는데 거기에서 좋은 기운을 받아 2연패를 달성할 수 있었던 것 같다”고 소감을 전했다.

끝까지 막상막하의 접전을 펼친 공동 2위 허윤경·김보경 선수도 시상대에 올라 각각 은메달과 동메달을 목에 걸고 기쁨의 순간을 함께했다. 김해림(롯데)·장수연(롯데마트)·김지희(비싸카드) 선수가 4언더파 212타로 공동 4위에 올랐고, 전인지 선수와 함께 시즌 3승을 노리던 고진영(넵스) 선수는 공동 22위(3오버파 213타)에 그쳤다.

올해는 우리회사 캐릭터 ‘구도일’과 더불어 ‘구대디’, ‘구미소’가 대회장 곳곳을 누비며 즐거움을 선사하고 홍보대사 노릇도 톡톡히 했다. 세 캐릭터는 귀여운 외모로 선수와 갤러리는 물론 TV중계를 시청하는 골프팬들에게도 많은 사랑과 관심을 받았다.

우리 대회만의 전통으로 자리 잡은 성화 점화는 새로운 흥미 요소로 팬들의 주목을 받았다. 디펜딩 챔피언 전인지 선수와 제주 고(高)씨인 고진영 선수가 제주의 신화를 간직한 삼성혈에서 성화를 채화하고, 이를 ‘구도일’이 이어



받아 제주 전역을 순회하는 가운데 역대 우승 선수들이 릴레이로 봉송을 하면서 개막을 알렸다. 한편 골프대회 최초로 1~3위 시상대에서 메달을 수여하는 이벤트를 지속해 우승자뿐만 아니라 정상에 향해 노력한 2, 3위 선수들도 축하하는 스포츠정신을 보여줬다.

특히 11번 홀에는 주유소를 그대로 옮긴 듯한 ‘하이 세탄 홀(S-OIL High Cetane Hole)’이 마련됐다. 경유의 핵심품질인 세탄가가 높아 출력과 가속성이 우수한 것으로 운전자 간 널리 알려진 우리 경유 제품을 그동안 필드에서 보지 못했던 형태의 시그니처 홀로 홍보한 것이다. 선수들이 마치 우리 계열주유소에서 힘차게 티샷 하는 듯한 장면이 만들어져 시청자와 갤러리의 눈길을 사로잡았고, 방송중계에서 특색 있는 시그니처 홀로 여러 차례 언급되면서 우리 경유 제품의 우수성을 알리는 계기가 됐다.

이번 대회는 KLPGA 투어 주관방송사인 SBS골프를 통해 낮 12시부터 오후 5시까지 모든 라운드가 단독 생중계됐으며 올 시즌 KLPGA 투어 대회 중 최고 시청률을 기록했다. 한편 우리회사는 대회 개최를 기념해 6월 8~14일 제주도 내 모든 우리 계열주유소, 충전소에서 고객 대상의 사은품 증정 행사를 진행했다.

멸종위기 천연기념물지킴이 캠페인 발대식

사라져가는 동물 지키는 간절한 노력

우리회사가 올해도 어김없이 천연기념물지킴이 활동에 나선다.
문화재청과의 1문화재 1지킴이 협약의 일환으로 시작된 멸종위기 천연기념물지킴이 캠페인은
이달 발대식을 시작으로 올해 활동의 포문을 열었다.



우리회사가 6월 3일 본사 대강당에서 '2015 멸종위기 천연기념물지킴이 캠페인 발대식'을 열었다. 이 자리에는 김동철 수석부사장과 이창재 부사장을 비롯해 한성용 한국수달보호협회장, 백종한 한국두루미보호협회 지회장, 이경자 한국조류보호협회 철원 지회장, 손영목 한국민물고기보존협회장, 이대암 천연기념물곤충연구소장 등 멸종위기 천연기념물 보호관련 기관장과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날 우리회사는 수달·두루미·어름치·장수하늘소 등 멸종위기 천연기념물을 보호하기 위한 후원금 2억 6천만 원을 쾌척했다.

우리회사는 장기간 지속적인 관심과 후원이 필요한 멸종위기 천연기념물 보호활동에 동참하기 위해 2008년 문화재청과 '1문화재 1지킴이' 협약을 체결했다. 이후 기업 최초로 해마다 멸종위기 천연기념물 보호기금을 지원하고 직원과 고객 가족이 참여하는 자원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다.

김동철 수석부사장은 올해 발대식에 대해 "어려운 여건에도 생태계 보호 및 연구활동에 헌신하는 여러 환경단체와 자원봉사자들이 서로 격려하면서 활동 경험을 공유하는 자리"라고 밝히고 "생태계 보존에 대한 공감대를 넓혀 멸종위기 동물 보호에 모두가 동참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우리회사는 천연기념물지킴이 활동으로 보호종 전문단체 연구·보호활동 지원, 직원 및 고객 가족 천연기념물지킴이 봉사활동, 대학생천연기념물지킴이단, 저소득가정 어린이 천연기념물 교실, 비무장지대 생태보호를 위한 군부대 자매결연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 2008년부터 작년까지 3천여 명의 직원 및 고객 가족이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2천600여 명의 저소득가정 어린이들이 생태교육 캠프에 참가했다.



{ 대학생 천연기념물지킴이단 운영 }

멸종위기 동물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미래 환경리더로서 역량 제고를 돕기 위해 대학생 팀을 구성하고 탐사캠프, 서식지 보호활동 등 시행

{ 누적참여자수 }

200명



{ 어린이 천연기념물 교육 }

화천(수달), 청평(어름치), 철원(두루미), 영월(장수하늘소) 등에 저소득가정 어린이를 초청해 천연기념물 일일교실 및 생태캠프 개최

{ 누적참여자수 }

2,620명



{ 환경보존 활동 }

해마다 정기적으로 임직원·고객과 그 자녀를 초청해 수달 방사, 어름치 치어 방류, 두루미 먹이주기, 서식지 보호활동 등 시행

{ 누적참여자수 }

3,106명



순직 해양경찰 유자녀 학자금 지원

승고한 희생정신, 희망으로 잇겠습니다

우리회사가 순직 해양경찰의 뜻을 기리고 그 자녀들을 보듬는 자리를 마련했다.
국민의 안전을 위해 헌신한 해양경찰의 승고한 희생정신을 되새기기 위해 순직 해양경찰 유자녀 학자금 전달식을 진행했다.



올해 3월 전남 신안군 가거도에 사는 초등학생이 급성맹장염에 걸렸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던 해양경찰 응급헬기가 악천후 속에서 바다에 추락했다. 헬기는 추락 8일 만에 인양됐다. 헬기에 타고 있었던 서해본부항공단 소속 고(故) 백동홍 경감은 해상근무 20년이 넘는 베테랑이자 아내와 세 자녀를 둔 가장이었다. 백 경감을 비롯한 해양경찰의 승고한 희

생정신을 기리고 감사를 표하기 위해 순직 해양경찰 유자녀 학자금 전달식을 마련했다.

우리회사는 6월 25일 해양경비안전본부(인천시 연수구 해돋이로) 국제회의실에서 해양경비안전본부, 한국사회복지협의회와 함께 '순직 해양경찰 유자녀 학자금 전달식'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이창재 부사장은 순직 해양경찰 유자녀 20명에게 4천만 원을 전달하고, 해양경찰 가족으로서 최선을 다해 학업에 전념해줄 것을 당부했다.

우리회사는 2013년 4월에 영웅지킴이 활동의 일환으로 해양경찰청과 '해경영웅지킴이' 협약을 맺은 뒤 순직 해양경찰의 초·중·고교 유자녀를 위한 학자금 전달을 비롯해 영웅 해경 표창, 공상 해경 격려금 전달, 해경 부부 휴(휴) 캠프 등을 지속적으로 시행하며 해양경찰을 지원해오고 있다.

구도일 캐릭터 마케팅 전략적 제휴

한 뼉 더 성장한 구도일을 약속합니다

우리회사가 구도일 캐릭터 마케팅을 강화하기 위해 캐릭터 전문회사와 손을 잡았다.
캐릭터 전문회사 부즈(VOOZ)와의 제휴로 구도일 캐릭터 마케팅이 보다 큰 시너지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회사는 6월 22일 본사 대회의실에서 신동열 부사장과 캐릭터 전문회사인 부즈(VOOZ)의 김부경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전략적 제휴 협약식을 열고, 국내 정유사 최초의 캐릭터인 '구도일'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브랜드 가치를 높여나가기로 했다. 이 협약을 통해 우리회사와 부즈는 캐릭터 콘텐츠·상품 개발, 제휴채널 발굴 등 캐릭터 마케팅 전반에서 상호 협력하여 시너지를 창출할 것을 약속했다.

우리회사의 캐릭터 '구도일'은 2012년 탄생했

다. 이후 광고캠페인, 프로모션·이벤트, 주유소 시설물 등 마케팅 활동 전반에 걸쳐 활약하며 소비자들의 사랑을 받는 가운데 국내 기업 캐릭터 중 가장 성공적인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또한 올해는 구랜파, 구대디, 오드리, 구미소 등 8종의 구도일 패밀리리를 새롭게 선보이면서 더욱 큰 주목을 받고 있다.

부즈(VOOZ)는 국내 최고 수준의 애니메이션 제작 능력과 국내외 탄탄한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는 캐릭터 전문업체로서 서울시 홍보대사로 활약 중인 캐릭터 '뿌까'를 보유하고 있

다. 그동안 우리회사는 구도일 캐릭터 개발, 캐릭터 페어 공동 참가, 콜라보 애니메이션 제작 등으로 긴밀한 파트너십을 유지해왔다. 우리회사는 이번 전략적 제휴를 계기로 특화된 노하우와 전문역량을 가진 부즈와 협업해 시너지 효과를 이끌어낼 예정이다. 특히 중장기적 관점에서 구도일을 중심으로 공감 스토리와 매력적인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개발해 시대를 대표하는 캐릭터로 키워나갈 계획이다.

TV-CF '채우세요' 시리즈

가족행복도 연인사랑도 가득 채우세요

우리회사는 5월에 이어 6월에 TV-CF '채우세요' 광고시리즈 두 번째 편을 공개하고 고객과의 소통에 나섰다. 이번 광고시리즈는 대화 단절의 시대에 아날로그 방식의 소통을 주제로 한 가족행복편과 연인사랑편으로 많은 고객의 공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 1차 TV 광고 가족행복편 }

#1



#2



#3



#4



#5



#6



#7



우리 제품을 가득 채우고 행복을 찾아 나서는 TV-CF '채우세요 가족행복편'이 5월 1일에 선보인 데 이어 6월 16일부터는 '채우세요 연인사랑편'이 공개됐다. 이번 광고는 가족 간, 연인 간 관계 회복을 위해 어디론가 떠난다는 내용으로 아날로그 방식의 소통에 대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

가족행복편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대화 단절된 가족 관계를 되돌아보도록 가족의 가치를 생각나게 한다. 특히, '구도일'과 함께 처음으로 '구도일 패밀리'로서 아빠 '구대디'가 등장해 부자시간으로 호흡을 맞춰 보는 재미를 더한다. 메인 캐릭터인 '구도일'에 더해 서

브캐릭터 '구도일 패밀리 8종'은 소비자와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개발, TV 광고를 통해 순차적으로 선보일 예정이다.

이번 TV 광고에 대해 소비자들은 "지금 당장 가족과 손 편지 하나라도 나눠야겠다", "소통의 의미를 되새기는 계기가 되었다"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6월에 공개한 연인사랑편은 다소 서먹해진 커플의 관계 회복을 위해 우리 제품을 가득 채우고 야외로 떠나볼 것을 권하며, 'S-OIL을 채운다는 건 사랑도 가득 채우는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그동안 CM송을 지속적으로 TV 광고에 활용해 브랜드의 친밀감을 높여온 우리회사는 이번 광고 시리즈에 공통적으로 '소닉브랜딩' 기법을 도입했다. 소닉브랜딩은 소리나 음악 등 청각적 요소를 이용해 소비자가 특정 브랜드를 떠올리게 하는 마케팅 기법으로, 자동차 주유구에 주유건이 들어갈 때 나는 '철컱' 소리를 효과음으로 도입했다. 최근 셀프주유소가 늘고 있는 상황에서 직접 주유건을 들고 주유를 해본 운전자라면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소리인데, '주유건 소리 = 에스-오일'을 연상시키도록 했다. 이번 소닉브랜딩 기법은 정유업계 최초의 시도로 많은 이의 관심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2차 TV 광고 연인사랑편 }

#1



#2



#3



#4



#5



#6



#7



#8



친환경 쌀 생산을 위한 우렁이농법 시연행사



6월 10일 울산 온산농협 삼평경제사
업장 인근 논에서 친환경 쌀 생산을
위한 우렁이농법 시연행사가 열렸다.
이 자리에는 김용연 전무를 비롯해
농협, 행정기관, 기업체, 농업인 등 관
계자 6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
는 친환경 쌀 생산 방법의 하나인 우
렁이농법을 알리기 위한 것으로, 시
연을 통해 32.2ha의 논에 1천610kg의
우렁이를 방사했다. 우렁이농법은 제
초제를 사용하지 않고도 뛰어난 잡초

제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농약에 의한 토양오염이나 수질오염을 방지할 수 있다.

우리회사는 2001년부터 온산지역의 친환경 우렁이 쌀 생산단지에서 쌀 40kg 9만여 포(약 59억 3천만 원 상당)를 매입해오고 있으며, 이를 지역사회 어려운 이웃에게 전해 나눔의 좋은 선례를 만들어왔다.

유류수송차량 운전원 안전작업복 전달

우리 제품의 육상수송을 담당하는 유
류수송차량 운전원들을 위해 우리회
사가 안전작업복을 전달했다. 임희승
상무와 정의산 수송팀리더는 6월 23
일 이진현 (주)삼보물류 대표와 만나
안전작업복을 전하고, 우리 제품의
안전한 수송을 책임지는 운전원들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표했다.

안전작업복은 정전기 방지 기능이 있
어 유류수송차량에 제품을 싣고 내릴
때 안전을 강화할 수 있다. 특히 우리

회사는 유니폼 착용에 따른 안전 강화와 함께 신뢰감 형성, 청결 등을 포함한 고객만족도 제고 효과를 고려해 1999년부터 유류제품수송 운전원들에게 연 2회 안전작업복을 지원해오고 있다. 이번에 전달한 안전작업복은 총 2천300만 원 상당의 여름·겨울용 상의다.



과학문화재단 앙코르코리아 사업단 에티오피아 강 수질 개선 프로젝트 참여



우리 과학문화재단의 후원 가운데 에티오피아 시멘트 기술전수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앙코르코리아 사업단이 새로운 프로젝트에 합류했다. 에티오피아 산업부 요청으로 아마다 과학기술대학(Adama Science and Technology University, 이하 ASTU)과 함께 에티오피아 강 수질 개선 프로젝트를 추진하게 된 것이다. 이에 앙코르코리아 사업단은 김수삼 성균관대학교 석좌교수를 필두로 한 자문팀

을 구성하고, 지난 6월 6~16일 ASTU 교수와 수질전문 관계자 등 에티오피아에서 온 방문단을 맞이했다.

첫 한국 방문에 나선 프로젝트 관계자들은 한국과학기술원(KAIST), 성균관대학교, 한양대학교 등의 환경공학 연구시설을 견학하고 한강수질연구센터, 수자원공사, 국립환경과학원 등 실무자들을 만났다. 또한 우리 자문팀과 프로젝트 추진에 관해 다각도로 논의하는 한편 수질분석 및 통제시스템 설계를 위한 벤치마킹 자료를 수집했다.

글 강영욱(운영지원팀)

새로운 성장의 도약을 향한 기록



사보 편집실에서는 사우 여러분의 소식을 기다립니다. 개인은 물론 팀/과, 부/부문 단위의 소식을 알려주시면 뜻있는 사료로서 기록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직원 개인과 가족, 팀/과 구성원 등 다채롭게 참여할 수 있는 기사가 마련되어 있으니 사보 편집실의 문을 적극 두드려주세요. 사보에 참여해주신 분께는 소정의 원고료 또는 기념품을 드립니다.

문의 sabo@s-oil.com

임원동정

- 6.8 이영진 상무보(전략기획본부장 보좌역 - 올레핀사업)→ODC Vice PM 겸 전략기획본부장 보좌역(올레핀사업)

인사동정

팀리더 임명

- 6.8 장재명(2급.구매팀)→구매관리팀리더(대행)
- 송원기(2급.지속가능경영팀)→북리후생팀리더(대행)

부장 임명

- 7.1 김승학(2급.기계부 기계2과장)→기계부장(대행)
- 7.2 정재훈(1급.장치부 장치1과장)→장치부장

보직변경

- 6.8 이영열(상무보.인력개발팀리더)→인사팀리더 박용만(1급.노사협력팀리더)→인력개발팀리더 박성훈(1급.인사팀리더)→노사협력팀리더 하대일(1급.변화혁신추진팀리더)→HR기획팀리더 서경섭(1급.HR기획팀리더)→변화혁신추진팀리더 김홍석(1급.무역세무팀리더)→세무팀리더 이계훈(전문부장.세무팀리더)→무역세무팀리더 백철웅(2급.업무팀)→구매팀 이종환(2급.정유Light제품팀)→해외마케팅전략팀 방준혁(4급.해외마케팅전략팀)→정유Light제품팀 손익홍(4급.HR기획팀)→지속가능경영팀
- 6.10 심동규(5급.석유화학공정팀)→RUC추진1팀 김동환(5급.안전관리부 안전관리과)→RUC추진2팀 박관우(5급.석유화학공정팀)→RUC추진3팀 서준호(5급.분해공정부 RHDS공정과)→ODC추진팀 박애녹(5급.기계부 예방정비1과) 이길웅(5급.공무부 설계1과)→프로젝트기술1팀
- 6.11 이병혁(3급.부산지사 판매담당)→직영주유소관리팀(영지주유소 및 총무주유소 파견)
- 7.1 윤종열(1급.기계부장)→설비관리부문담당 보좌역 강신훈(3급.기계부 기계1과장)→기계부 기계2과장 전동훈(3급.기계부 예방정비1과)→기계부 기계1과장
- 7.2 이대성(1급.장치부)→HDA프로젝트기술팀리더 이명균(2급.공무부 설계2과)→장치부 장치1과장 박지훈(4급.공무부 설계2과) 김건일(4급.공무부 설계3과)→HDA프로젝트기술팀 백승민(4급.분해공정부 HYC/LUBE 공정과)→공정Upgrading추진부 정유공정Upgrading과
- 7.7 김병국(1급.관리회계팀) 백인호(3급.신용관리팀)→프로젝트예산팀 박애녹(5급.프로젝트기술1팀)→RUC추진1팀

퇴직

- 6.12 강미진(5급.북리후생팀)
- 6.30 이민구(5급.검사부 검사2과)

부음

- 6.3 고태훈(품질관리2과) 부친
- 6.5 허윤성(안전처유소) 빙부
- 6.7 이종협(Aromatics동력과) 부친
- 6.9 김대연(정유1과) 모친 임학빈(목포지사) 부친
- 6.12 이영재(법인영업팀) 빙모
- 6.18 김성진(장치1과) 부친
- 6.19 장경숙(윤활기유국내영업팀) 모친
- 6.26 박현철(안전처유소) 조모
- 6.29 권병환(기계1과) 빙부
- 7.1 김병환(윤활유1과) 조부

결혼

- 6.14 최원철(정유공정과)
- 6.20 권대웅(윤활기유국내영업팀) 조설화(수급운영팀) 김동현(장치2과)
- 7.4 장현준(동력3과) 정수복(탈황2과) 김민철(정유Heavy제품팀)
- 7.26 김용환(SHE준법지원과)

‘마법의 물질’에서 문명의 이기로

최초의 석유

현재는 석유 사용이 일반화돼 있지만, 고대인들이 처음 석유를 발견했을 때만 해도 그것은 미지의 물질이었다. 그럼에도 당시 석유의 쓰임새는 기록에서 확인될 만큼 의미가 있다. 석유제품을 빼놓고는 그 삶을 상상하기 어려운 오늘날의 현대인에게 최초의 석유 이야기는 흥미로운 토막 상식이 될 수 있다.

바위 더하기 기름은? 석유!

석유는 탄소와 수소로 구성된 탄화수소 화합물이다. 라틴어의 ‘페트라(Petra, 바위나 돌)’와 ‘올레움(Oleum, 기름)’에서 유래된 ‘페트롤리엄(Petroleum)’이라 지칭되며, 보통 원유와 석유제품 모두를 포괄하는 가운데 경우에 따라서는 원유를 의미하기도 한다.

석유는 처음에 지하 곳곳에 산재해 있다가 점차 여러 종류의 암석을 따라 이동해 어느 한 곳으로 모이게 된다. 이 과정에서 일부가 지각 변동으로 인해 지층 내지는 단층을 따라 지표로 노출되기도 한다. 이때 노출된 석유 중 휘발성이 있는 물질은 공기 중으로 날아가고 ‘타르(tar)’ 또는 ‘피치(pitch)’로 불리는 고형물질만 남게 된다. 인류가 최초로 발견한 석유가 바로 이러한 타르 또는 피치 형태였다.

구약성서에도 등장하는 석유

인류는 오래전부터 석유를 사용했다. 구약성서에 의하면 노아가 방주에 역청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역청은 일반적으로 천연의 아스팔트나 타르 같은 물질을 말한다.

기원전 3000년경 메소포타미아 지방의 수메르인들은 아스팔트를 재료로 신상을 세웠고, 바빌로니아인도 아스팔트를 건축 접착제로 사용한 기록이 남아 있다. 고대 이집트에서는 미라를 싸는 천에도 아스팔트를 사용했고, 기원전 500년에는 고대 페르시아의 사원에서 어둠을 밝히기 위해 석유램프를 썼다고 한다.

고대 이집트에서는 석유를 상처에 바르는 등 의약용으로 사용했다고 하는데 지금도 약용으로 쓰는 바셀린이 석유를 가공해 만든 석유화학제품이다.

고대인들에게 석유는 매우 신비로운 물질이었다. 그들은 석유를 ‘죽은 고래의 피’라고 생각하기도 했으며, ‘유황이 농축된 이슬’의 일종으로 보기도 했다.



두런두런 수다방

사우들의 일상과 행복이 담긴
사연을 소개합니다



따뜻한 기억 가득한

신혼의 여정

시칠리아 여행

시칠리아 마피아의 본거지이자 영화 <대부>의 배경이 된 이탈리아 시칠리아로 신혼여행을 떠난다고 했을 때, 주위 사람들 대부분은 그곳이 여행하기 안전한 곳이라며 우려 섞인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나의 최대 걱정은 '아직 한 번도 의견 충돌을 겪어보지 않은 남편과 버스를 갈아타며 다녀야 하는 첫 자유여행을 별 탈 없이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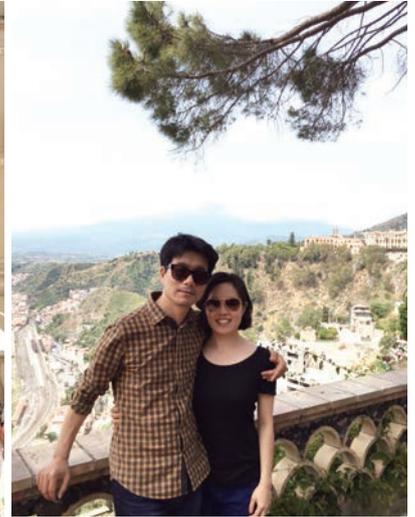
우려와 달리 우리는 싸우지 않았다. 문제는 시칠리아행 경유지였던 로마공항에서 여행가방을 잃어버렸다는 것이다. 덕분에 시칠리아 섬에서 매번 똑같은 옷을 입고 사진을 찍었고, 남편은 매일 그날 일정이 끝나면 옷을 손빨래해서 베란다에 암전히 걸어놓아야 했다. 가방이 도착하기를 학수고대했던 6일 내내 말이다. 그렇게 시칠리아 3개 도시 여행이 시작됐다.

첫 여행 도시는 카타니아였다. 기원전 8세기경 역사가 시작된 카타니아는 중세시대의 문화 중심지였으나 지진과 에트나(Etna) 화산 폭발로 인해 도시가 무너지고 재건되기를 수없이 반복했다고 한다. 용암과 화산재에 뒤덮인 횃수가 무려 일곱 번인데, 가장 심각한 피해를 입은 1669년 화산폭발 당시에는 도시가 완전히 파괴되고 1만 2천여 명이 목숨을 잃었다.

화려한 바로크 양식의 건축물이 끼만 화산재와 어우러져 담담하면서도 이국적인 풍경을 펼쳐 보이던 카타니아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바로 시칠리아 사람들이었다. 지도를 못 읽는 우리 부부가 매번 길을 물을 때마다 통하지 않는 언어를 뒤로하고 손짓으로 따라오라고 했던 사람들. 우리는 말없이 띄약별 아래 앞뒤 간격을 둔 채로 십여 분을 걸었고, 그들은 목적지에 우리를 데려다 놓고서야 “차오” 하면서 마지막 인사를 건넸다. 여행 내내 단 하루도 빠짐없이 이런 따뜻한 경험이 반복됐다.

두 번째로 찾아가는 도시는 타오르미니다. 고대 그리스 원형극장에 앉으면 연기를 내뿜는 에트나 화산과 푸른 지중해를 무너진 무대 사이로 바라볼 수 있는 곳이다. 기원전 395년에 세워진 원형극장은 오늘까지도 옛 모습이 거의 그대로 보존돼 있다.

마지막 도시는 시라쿠사다. 부력의 원리를 깨닫고 목욕탕에서 뛰어나와 “유레카!”를 외친



그리스의 수학자이자 물리학자 아르키메데스가 이 도시에서 태어났다. 구시가지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돼 있다.

이 도시에서는 잊지 못할 정어리 파스타를 맛봤다. 큰 기대 없이 들어간 소박한 동네 식당이었다. 경유 비행의 긴 여정을 감수하고서라

도 반드시 다시 먹고 싶은, 신선한 바다향기와 감칠맛이 가득했던 파스타! “문 닫을 시간”이라는 식당 주인의 말에 “배고픈 여행객”이라며 울상을 지으니 흔쾌히 들어오라고 해 요리를 맛볼 수 있었다. 이제와 돌이켜 생각하니 ‘주인장 아저씨와 기념사진을 한 번 찍을 걸!’하는 후회가 든다. 또, ‘배가 터질 것 같아도 두 그릇은 먹어야 했는데...’ 하는 아쉬움이 가득 남는다.

부부로서 함께한 첫 여행은 시라쿠사를 마지막으로 끝났다. 여행을 마치자 여행은 어쩌면 ‘섬포’가 아닌 ‘도돌이표’인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떠나야만 머물러 있는 자신을 볼 수 있고, 다시 돌아오기 위해 간절한 마음을 품고 떠나기 때문이다. 첫 여행을 새롭고 즐거운 순간들로 콕콕 채웠으니, 앞으로 한층 다채롭고 풍요로운 시간을 만들어 가리라. 그리고 그렇게 지나다가 언젠가 다시 한 번 떠나고 싶다. 시칠리아 여행을.



**떠나야만
머물러 있는
자신을 볼 수 있기에,
다시 돌아오기 위해**

간절한
마음을 품고
떠난다





낭만과
풍류
그림 같은

풍경이 가득한
영감의 도시
이탈리아
차오, 차오, 차오

지중해 따라

소설 속 주인공처럼

이탈리아 여행

글 오혜린(경영기획팀)

2015년의 절반을 보낸 뒤 이탈리아로 휴가를 다녀왔다. 200년 전 괴테의 이탈리아 여행에 화가 티슈바인이 동행했던 것 이상으로, 이번 여행에는 준법지원팀 박재인 변호사가 함께해줘 더욱 멋진 여행이 됐다.

북부 베니스에서 시작해 남부 로마에서 마무리했던 2주간의 이야기를 짧게 소개하려 한다.

물의 도시로 잘 알려진 베니스에서 여행을 시작한 것은 더없이 적절한 선택이었다. 좁은 수로를 오가는 곤돌라에서는 의미를 알 순 없어도 충분히 낭만적인 가곡이 들려왔고, 골목을 지나 나오는 광장의 야외 테이블에서는 많은 사람이 해 질 녘 정취를 만끽하고 있었다. 분위기만큼 훌륭한 맛은 아니었지만 현지에서 처음 먹어본 파스타와 생선요리도 우리가 정말 이탈리아에 와있다는 사실을 상기시키기에 충분했다.

총독공관이었던 두칼레궁전 꼭대기에서 바다와 함께 펼쳐진 도시를 조망할 때는 과거 동서무역으로 거대한 부를 축적한 상업도시 베니스에 들어와 있는 듯한 기분을 느끼기도 했다.

다음 목적지인 피렌체는 '플로렌스(Florence)'라는 이름에 걸맞게 꽃과 녹음이 우거진 도시였다. 베니스에서 조금씩 남쪽으로 이동하면서 이탈리아의 뜨거운 햇살을 본격적으로 느낄 수 있었는데, 포도가 잘 익을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절로 드는 날씨가 계속됐다. 토스카나산 와인의 유명세를 이해하기에 충분했던 경험이었다.



특히, 소설가 댄 브라운의 팬인 나에게 <인페르노>의 무대인 피렌체는 좀 더 의미 있는 장소였다. 보티첼리의 <비너스의 탄생>, <프리카 베라> 등 대작을 소장한 우피치미술관과 그 옆의 베키오다리는 그 자체로도 훌륭한데다가 소설 속 주인공의 동선을 따라가며 기억에 남은 장면을 재구성해보는 재미도 쏠쏠했기 때문이다.

여행 후반부에는 이탈리아 남부 소도시로 여정을 이어갔다. 아말피 코스트에 속소를 잡고 근처 도시인 카프리와 포지타노, 라벨로에 다녀왔다. 어떤 마을이든 지중해의 푸른 바다를 감상하기에 부족함이 없었는데, 특히 라벨로는 남부 여행자들에게 가장 먼저 추천하고 싶은 인상 깊은 장소다. 해마다 절벽 위에 설치된 무대에서 환상적인 뮤직 페스티벌이 열린



다는 이곳은 작곡가 바그너 또한 오페라 <파르지팔>을 완성하는 데 영감을 얻은 장소라고 한다. 시기가 맞지 않아 페스티벌을 즐기지는 못했지만, 대신 마을 광장의 성당에서 열린 누군가의 결혼식을 잠시 구경했다. 자유롭게 들뜬 분위기 속에 하객들이 축배를 드는 모습은 내 사진 프레임에도 예쁘게 담겼다.

여행의 마지막 도시였던 로마에서는 현지 가이드투어를 받을 기회가 있었는데 '로마 사람들은 예술가라기보다 엔지니어였다'는 설명을 아주 잘 이해할 수 있었다. 콜로세움과 포로 로마노의 신전 주춧돌 사이를 거닐면서 오래전 거대건축을 완성한 로마인들의 기술에 감탄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바티칸에 다녀온 다음날에는 그 웅장함과 경건함에 감동을 간직한 채 서점에 들러 바티칸을 배경으로 한 댄 브라운의 소설 <천사와 악마>를 사서 읽는 것도 잊지 않았다.

귀국한 뒤 지인의 음악회에서 멘델스존 교향곡 4악장 <이탈리아>를 감상하며 지난 도시의 모습을 떠올리는 것으로 나의 이탈리아 여행은 완전히 마무리됐다. 수많은 작가와 화가, 음악가들이 모여 영감을 받고 멋진 작품들을 생산해냈던 이탈리아는 비단 예술적인 부분에서만만이 아니라 여러모로 충분히 매력적인 나라다. 남쪽 특유의 풍류를 즐길 줄 아는 사람들과 맛있는 술, 그림 같은 풍경이 가득하니 말이다. 다음번에는 좀 더 여유 있게 이 멋진 국가를 들여다볼 수 있으면 좋겠다. 또 언젠가를 기약하며, "차요(Ciao*)"!

*이탈리아어로 '안녕'이라는 뜻



고 된 산 행 도 가 족 과 함 께 라 면 꿀 맛 같 이 달콤 합 니 다 추 억 이 깊 어 졌 습 니 다



노고단 산장

꿈결 같은 기억

지리산 가족산행

글 김준목(품질보증팀)

봄에서 훌쩍 여름으로 넘어가는 계절의 길목에 가족이 뜻을 모아 지리산 노고단에 다녀왔다. 아내와 초등학교를 다니는 아들, 딸이 총출동했다.

목적지는 노고단 산장이다. 이곳을 이용하려면 사전예약이 필수다. 그런데 예약하기가 만만치 않았다. 거의 쟁취해야 하는 수준에 가깝다. 노고단 산장에 몇 번 다녀온 경험이 있어 이전에도 몇 번 예약에 실패한 적이 있는데, 예약이 인터넷으로 이뤄져 순식간에 예약이 완료돼버린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다행히도 이번에는 예약에 성공할 수 있었다. 가장 어려운 관문 하나를 넘었으니 드디어 가족과 지리산으로 떠날 수 있게 됐다.

성삼재에서 노고단까지는 2.5km 거리다. 아직 어린 아이들이 고된 산행을 잘 이겨낼까, 하룻밤 묵는 산장에 잘 적응할까 걱정이 앞섰다. 하지만 걱정은 기우일 뿐이었다. 나는 성삼재까지 가는 장시간의 운전에도 지치지 않았고 에너지가 넘쳤다. 알맞게 비가 내렸지만 가족들은 오히려 더 신이 났다.

우리 가족은 즐거운 산행 끝에 노고단 대피소에 도달했다. 거기서 라면 파티를 벌였다. 꿀맛보다 더한 라면으로 한 끼 식사가 충분했다.

일찍 해가 지는 산속에서 땅거미 진 뒤 한참 지난 저녁 8시가 넘어서야 산장에 입실할 수 있었다. 자주



와본 나도 산장에서 하루 묵는 게 좀 불편했는데 아이들은 이런 경험이 신선했는지 또 오고 싶다며 좋아했다. 오랫동안 그려온 가족과의 지리산 여정이었는데 참으로 즐거워하는 아이들 모습에 '이제 여한이 없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행복했다. 우리 가족에게 소중한 추억이 한층 더 쌓였다.

매일 아침이면 부산 해운대에 있는 해발 600여 미터의 장산으로 산악자전거를 타러 간다. 장산은 도심 한복판에 자리 잡고 있으면서도 봉우리와 계곡이 자연상태 그대로 잘 보존돼 있다. 고도가 과하게 높지 않고 등산로를 포함한 일대가 깨끗하게 정돈돼 있기에 잠시나마 자연 속에서 숨 쉬길 원하는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산이기도 하다.

산악자전거로 이룬

활력충전

산악자전거 라이딩

글 강두한(품질보증팀)



세월 따라 인생의 희로애락을 경험하며 성장해온 지금, 모든 열정을 자전거에 쏟으며 매일 새로운 기분을 느끼고 있다. 자전거로 제2의 인생을 연 듯하고, 그만큼 신선한 활기를 되찾았다. 뛰어난 실력이나 기량을 생각하기보다 자전거 그 자체를 향한 내 마음속의 사랑과 열정이 각별하다는 것을 느낀다. 의욕 탓에 한때는 보호장비 없이 라이딩에 뛰어들었다가 가벼운 부상을 입은 적도 있다. 그러나 그 뒤로는 모든 장비를 엄격히 착용하고 라이딩에 나서고 있다. 취미와 특기를 연마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와 가족, 동료 등 모두의 행복을 위해서 안전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 때로는 생각한다. '대자연이 주는 푸근함 속에 덤으로 스릴을 선사하는 것은 자전거밖에 없다'고 말이다. 스릴보다 더 기분 좋은 일도 있다. 해운대 장산에서 산악자전거와 함께하면서 자연스레 동료들과 마주 친다는 것이다. 짜릿한 쾌감을 즐기는 가운데 좋은 사람들도 만날 수 있는 자전거 라이딩을 모두에게 권하고 싶다.



자 전 거 타 고 자 연 의 시 원 한 바 략 가 르 며 제 2 의 인 생 을 짜 릫 하 게 달 립 니 다





상기된 얼굴로
마주한
반가운 회원들
함께 땀 흘려
더 크게 행복합니다

땀으로 정 쌓는 훈훈한 만남

탁구동호회 모임

글 원유진(운영지원팀)

본사 탁구동호회가 즐거운 모임을 개최했다. 6월 26일 저녁 7시 대강당에서 올해 두 번째 정기회합을 가진 것이다. 탁구동호회는 지난 3월 유남규 감독을 비롯한 우리 탁구단과 만나 경기 지도를 받고 약식 경기를 펼치며 뜻깊은 시간을 보낸 바 있다. 이번에도 우리 탁구단이 현장에 동참해 모임을 빛내줬다. 삼삼오오 모여든 동호회원들은 정시가 지나자 40여 명으로 불어났다. 정식으로 탁구 운동복을 갖춰 입은 회원은 물론 나름의 체육복으로 갈아입은 회원까지 탁구를 향한 관심과 애정이 많은 직원을 한데 뭉치게 했다.

이날 모임에서 단식·복식 경기가 진행됐고, 뒤이어 친목행사 자리도 마련됐다. 땀을 흠뻑 흘린 뒤 편안한 자리에서 다시 만난 동호회원들은 상기된 얼굴로 지난 몇 달 사이의 안부를 챙겨 물었다. 친목행사 중에 소박한 이벤트를 진행해 상품의 행운도 나눠가졌다.

올해 의욕적으로 마련했던 첫 모임에 이어 두 번째 만남까지 정겹게 마무리한 탁구동호회는 회원의 적극적인 참여 덕분에 앞으로도 잘 운영될 것으로 믿는다. 더불어 동호회의 문은 활짝 열려 있으니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언제든지 동참하기를 권한다.



역사 속 인물이 가르치는

지혜의 한 수

〈한 군인의 회상, 구데리안〉을 읽고

글 최재승(제품운영2과)



월드컵 축구경기를 시청할 때 독일 축구대표팀을 전차군단에 비교하곤 한다.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라고 하는데 제2차 세계대전 패전국 독일의 하인츠 구데리안 장군은 전차군단의 주역으로 꼽히며 승전국 관련 인물보다 더 많이 회자되는 인물이다. 그는 '기갑부대의 아버지'라는 별명을 가졌는데 요즘 경영·경제 분야에서 역발상의 영감을 주는 인물로 일컬어지고 있다.

내가 하인츠 구데리안 장군을 접한 것은 그의 회고록 〈한 군인의 회상, 구데리안〉을 통해서다. 평소 밀리터리 서적에 관심이 많았는데 책이 출간된다는 소식에 학수고대하던 터였다. 군인이자 군사이론가였던 구데리안 장군은 많은 인명이 살상되는 참극을 극복하기 위해 히틀러를 설득해 기갑전술과 그에 상응하는 전차를 개발했다. 그는 나치에 가담하지도 않았고 유대인 학살에도 반대했다. 탁월한 전술과 뛰어난 전략적 식견으로 기갑부대를 지휘했고, 혁신적인 생각을 가진 지휘관으로서 많은 부하의 신망과 존경을 받았다.

제1차 세계대전은 수많은 인명이 살상되는 참호전의 연속이었다. 이를 극복할 목적으로 영국은 비밀리에 최초의 전차를 개발했고 여러 전투에서의 실패를 거듭한 끝에 전투화기로서의 가능성을 인정받게 됐다. 전쟁이 끝난 뒤 각 나라에서 전차를 바라보는 관점은 사뭇 달랐다. 프랑스는 참호전이 성공적이라 여겨 전차를 보병의 보조무기로만 판단하고 마지노선이라는 거대한 참호를 건설하는 데 국력을 썼다. 이와 다르게 독일은 전차가 참호전을 극복할 수 있는 혁신적인 병기라고 보고 전차와 관련 전술을 개발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하인츠 구데리안이 독일의 역사적 과오와 별개로 오늘날 조명받는 이유는 그의 어록에서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 같다.

“절망적인 상황이란 없다. 절망하는 인간이 있을 뿐이다.”



절망적인
상황이란 없다
절망하는
인간이
있을 뿐이다



한국을 알아가는

따뜻한 나날

페트로라비 공장 교육생 한국체류기

글 자하드 쇼아입(페트로라비 운전원)
자료제공 황인재(이익개선팀)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자하드 쇼아입(Jehad Shoaib)입니다. 저는 페트로라비(Rabigh Refining and Petrochemical Company*) 소속 직원으로서 올해 4월 20일부터 온산공장에서 파라자일렌 공정에 대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에 첫발을 내디딘 후 지금까지 받은 교육과 한국생활에 대해 소개하고자 합니다.

현재 저를 포함한 27명의 교육생이 아로마틱·파라자일렌 공정에 대해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또 다른 교육생 2명은 MTBE에 관한 교육을 마치고 6월 중순에 출국했습니다. 이번 교육의 목적은 2016년 중순 상업가동 예정인 페트로라비의 아로마틱·파라자일렌 공정에 대비해 운전원의 공장 운영능력을 배양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반응기, 열교환기, 가열로 등 설비 기본교육을 이수했고, 6월 1일부터는 아로마틱과 파라자일렌 공정으로 조가 나뉘어 본격적인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파라자일렌 교육생으로서 Aromatics생산2부 조정실에서 교육을 받는데, 교실과 생산현장을 오가면서 다양한 공정 운전지식을 습득합니다. 생산현장에서 오랜 경험을 쌓으신 강사님들의 노하우를 전수받기 위해 매일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처음 김해공항에 도착했을 때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날씨와 풍경이었습니다. 선선한 바람과 사방에 만개한 꽃, 그리고 푸른 하늘을 보며 '이게 바로 봄이구나'하고 실감했습니다. 공항에서 숙소인 해운대센텀호텔로 이동해 짐을 풀고 공장 교육과 한국생활에 대해 설명을 들었습니다. 당시에는 모든 것이 생소했지만, 지금은 부산뿐 아니라 서울에서 지하철로 구석구석을 누빌 수 있을 정도로 익숙해졌습니다.



* 페트로라비 : 사우디아라비아 서부의 라비 지역에 위치한 원유정제능력 하루 40만 배럴의 석유화학업체로서, 사우디아람코와 일본 수미토모의 합작회사다.



교육일정이 없는 주말에는 주로 해운대 근처에서 먹거리 탐방을 하고, 백사장에서 축구도 합니다. 그런 우리 모습을 한국 사람들은 신기한 눈으로 바라보는데, 사우디에는 사막이 많아 모래 위에서 축구하는 것이 매우 익숙합니다. 때로는 워터파크에서 수영을 하기도 합니다. 큰 규모의 워터파크는 다양한 놀이기구가 있어 즐겨 찾는 곳입니다.

비가 올 때도 이국에 와있다는 사실을 새삼 느낍니다. 한국인들은 비가 너무 많이 오면 달갑지 않지만, 사우디에서 비를 거의 겪어 보지 못한 저로서는 비가 얼마나 반가운지 모릅니다. 처음 한국에서 비를 접했을 때 일부러 우산도 쓰지 않고 옷이 흠뻑 젖을 때까지 돌아다니던 기억이 납니다.

한번은 시간을 내어 서울을 방문했습니다. 한국의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경복궁을 방문하고, 상암월드컵경기장에서 축구를 관람하며 2002년 월드컵의 감흥도 느껴볼 수 있었습니다. 조만간 제주도에 방문해서 한국의 또 다른 모습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한국에 대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는 가수 사이의 노래 '강남스타일'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한국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하면서 한국인들의 따뜻한 정에 반했고, 전쟁의 폐허를 딛고 경제발전을 이룬 모습을 생생하게 경험하면서 놀라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특히 이번 교육생 가운데 절반가량은 사우디 현지에서 한국산 자동차를 가지고 있고, 스마트폰도 한국기업 제품을 쓰기에 한국에 대해 더 알고 싶은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에쓰-오일에서 받은 교육, 그리고 한국에서 생활하며 얻은 풍성한 경험은 제 경력을 한층 강화해주고 세상을 보는 눈을 확장해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또한 이번 교육이 페트로라비아 에쓰-오일의 더 깊은 협력 관계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교육과 더불어 만끽하는 한국 생활, 한국이 더욱 궁금해 집니다





환경과 이익

모두를 지키는 소통

환경팀 최재우 사우

결론은 소통입니다

환경팀은 회사의 환경 이슈와 관계된 모든 업무를 수행합니다. 대기환경, 수질환경, 폐기물, 사고 등 법령을 준수하며 이익활동이 지속될 수 있도록 대정부 소통을 하고 있는 것이죠. 환경관리팀, 안전관리팀, 대외업무팀과 밀접하게 업무소통을 하고 연료연구팀, 촉매연구팀, 품질관리부를 비롯한 다른 부서와도 떼려야 뗄 수 없습니다.

한편 정유업계의 협의체 소통도 중요합니다. 정유사와 정유업계, 정부관계부처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환경보호에 함께 힘을 모아야 하죠.

앞선 기술로 지키는 환경과 안전

우리 CEO는 환경과 안전을 강조합니다. 그만큼 우리 회사 구성원 모두가 전 업무에 걸쳐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화두입니다. 덕분에 선제적인 대응을 함께해나갈 수 있습니다.

규제가 불편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입니다. 이에 부합하게 우리 제품은 '세계 최고의 기술'로 만들어집니다. 더불어 안전도 효율도 세계 최고를 지향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아빠가 자랑스런 회사의 일원이라는 걸 자녀에게 꼭 전하고 싶습니다. 20년 동안 에스-오일에서 근무하면서 남다른 자부심을 느껴왔습니다. 선배들께 감사하고 후배들과 이런 마음을 공유하고 싶습니다.

• CEO 표창

- 한국석유공사 부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시 공공녹지 기부 비율 최소화과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및 배출권거래제 대응에 기여

생각을 넘어

실천하는 안전

PX생산과 임인홍 사우

앞서간다는 자부심으로 근무합니다

PX생산과의 'Eluxyl'* 공정은 우리회사가 '세계 최초'로 상업 가능한 공정입니다. 최초라는 말은 다른 공정이 나왔을 때 뒤처진다는 말이 아닙니다. 노하우를 활용해 끊임없는 개선을 이뤄 계속 선두에 설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부서의 일원이라는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회사 지원으로 프랑스 현지에서 공부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곳 소규모 공장을 보면서 느낀 점이 많았습니다. 제가 느낀 점들을 아이디어로 개발해 제안하면서 더욱 효율적인 공정의 부서를 만들고 싶습니다.

직접 움직여야 안전은 일상이 됩니다

공장은 안전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누구 하나가 강조한다고 덜컥 실현되지도 않습니다. 팀원 모두가 공감대를 가지고 시행해야 안전은 비로소 실현될 수 있습니다.

CEO가 높은 안전 관리 의지를 보여주듯이 우리도 현장에서 안전을 실천해야 합니다. 작년과 재작년에 우리 부서는 2년 연속으로 안전사고 및 공정 문제 제로화를 달성했습니다. 우리 팀원들이 한마음으로 노력한 결과입니다. 앞으로도 개인과 조직이 어우러져 안전을 최우선으로 여기며 함께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혼합 자일렌을 흡착제와 탈착제를 이용해 선택적으로 PX만 분리 생산

- CEO 표창
- 안전사고와 공정 문제 제로화 실현, 에너지 절감 최우수 생산과 달성에 기여



No.1 주유소

전국 주유소를 찾아
성공 전략을 들여다봅니다

순천햇살주유소

S-OIL
품질보증

믿음가득
주유소

S-OIL

S-OIL

교감과 공감

최고의 서비스입니다

순천 햇살주유소

주유소에 다녀가는 모든 고객께
항상 따뜻한 마음을 전하고자 하는
주유소가 있다. 우리 C의 햇살 모양에서
착안해 햇살주유소라고 이름 지은
순천 햇살주유소에는 고객을 맞는
젊은 활기가 가득하다.

활기 넘치는 에너지까지 주유합니다

순천 햇살주유소에 주유를 하러 들어서면 젊은 청년이 웃으며 뛰어나온다. 그는 바로 직영주유소 운영 3년차의 젊은 리더, 정다운 대표다. 실 새 없이 주유나 세차를 하러 들어오는 차들을 맞느라 검게 그을린 얼굴과 손목에 단단히 매어 있는 붕대가 그의 열정을 보여준다.

여수에서 자라 일본 리쓰메이칸대학에서 사회학을 전공했다는 그는 일본에서 서비스하는 마인드에 대해서 느낀 바가 많다.

“보통, 카드 결제하시는 고객께 ‘영수증 필요 없으시죠?’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영수증 필요하시죠?’라고 묻습니다. 그러면 의외로 많은 고객께서 웃으면서 영수증을 챙겨 가신답니다. 사소하지만 이런 기본적인 것들부터 충실하게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다운 대표는 주유소는 기본적으로 100% 정품이라는 신뢰와 대인서비스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여기서의 대인서비스란 ‘고객과의 교감’이라고 강조한다. 늘 고객과 눈을 맞추며 인사하려 애쓰는 것이 교감의 시작이다.

상황에 따라 서비스는 늘 달라진다. 건설현장에 나가시는 분께는 생수를 드리고 아이가 있는 여성고객께는 물티슈를 제공하는 등 고객의 특성에 맞게 서비스를 하는 게 햇살주유소 서비스의 포인트다. 최근엔 메르스 때문에 방문하시는 모든 고객께 물티슈를 제공하고 있다.

상주인구가 적은 이곳에서 단기간에 많은 단골을 확보할 수 있었던 비결은 배우려는 자세 덕분이다.

“제가 나이가 어리고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오히려 고객께 매번 어떤 점을 개선하는 게 좋을지 여쭙니다.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 대하여 더 많이 배우려 합니다. 서비스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데 90%도 세 번 곱하면 80%도 안 된다는 말이 있잖습니까. 항상 긴장하고 모든 상황에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내 차가 따뜻한 ‘집밥’을 먹은 기분이기를

햇살주유소는 시가지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 외진 곳에 위치하고 있다. 시외곽지역이라 직원을 구하기 어려워 어머니와 직원 한 분까지 총 3명이 아침 6시에서 밤 11시까지 근무한다. 정다운 대표는 힘든 기색도 없이 웃으며 말한다.

“누가 보면 힘들겠다고 하지만, 저는 현재의 생활에 아주 만족하고 있습니다. 다민치의 모토가 ‘오스티나토 리고레’라는 말을 어느 책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완고한 엄격성’을 뜻하는 말인데,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끈기 있게 행동한다는 말이라더군요. 인상이 깊어 저도 항상 상기하며 일하고 있습니다.”

햇살주유소는 환경부 지정 클린주유소이고 2014년에는 에스-오일 최우수 서비스주유소로 선정됐다. 그에 걸맞게 주유소는 매우 깔끔하고 팀워크가 매우 잘 이뤄지고 있었다. 함께 일하는 직원 모두 짧은 주유시간 동안에도 고객과 의사소통을 많이 하고 자상한 모습이다.

햇살주유소에서 일하는 세 사람의 정감 있는 대접을 받고 나면 짐짓 동생과 누나 그리고 어머니를 만나고 온 것처럼 마음이 훈훈해질

법하다. 고객과 고객의 차가 따뜻한 ‘집밥’의 호감을 누리고 주유소를 나서는 모습이 선명히 그려진다.

정다운 대표 미니인터뷰



햇살주유소는?

전라남도 순천 17번국도 순천공단사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운영되며 상주인구가 적은 지역이지만 뛰어난 서비스 정신으로 많은 고객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 전라남도 순천시 서면 백강로 689
- 061)751-0086

목표와 포부

각별한 책임감으로 서비스에 최선을 다하고 싶습니다. 해마다 최우수서비스상을 받았다는 의지로 열심히 일하면서 고객께 활기찬 웃음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제주저유소 김종민 사우 가족

청량한 하늘을 사랑하는 제주도 이호테우 해변에서 김종민 사우의 가족과 만났다. 결혼한 지 20년, 긴 시간이 흘렀지만 김종민 사우 부부는 여전히 사랑 가득한 눈길을 주고받는다. 사랑의 기운이 담뿍 묻어나는 김종민 사우 가족과 유쾌한 저녁식사를 함께했다.



아빠가 가족에게

여보, 가족을 위해 여러모로 애쓰는 당신이 있기에 지금까지 무탈하게 잘 지내온 것 같아. 표현력도 부족하고 무드도 없는 남편이지만, 앞으로 애교 있는 모습 보이도록 노력할게. 평안아, 주안아. 듬직한 너희가 있어 아빠는 너무나도 행복하다!

그저 함께 있으니 좋아요

푸른 제주도, 가족을 물들이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김종민 사우는 20년 동안 변함없이 에스-오일과 함께해왔다. 하나 변한 게 있다면 입사 때부터 15년 동안 근무하던 울산을 떠나 5년 전 제주로 건너온 것이다. 제주행은 김종민 사우의 뜻이었다. 가족여행으로 왔던 푸른 제주를 잊지 못해서다.

“낮선 제주로 온 뒤로 가족과 각별한 마음으로 지낼 수 있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제주에 오고 3년 동안은 가족과 제주 곳곳을 다니며 추억을 쌓았죠. 우리 가족에게는 지금이 가장 행복한 때입니다.”

행복한 기억을 말하는 김종민 사우의 옆에서 아내 안은화 씨는 남몰래 담아두었던 속내를 내비친다.

“그래도 초반엔 어려움이 있었답니다. 남편과 아들이 회사로, 학교로 집을 나서고 나면 집에 혼자 남게 되잖아요. 아는 사람 하나 없었고요. 제주도 생활에 적응하기까지 시간이 필요했죠.”

비운 뒤 땅이 굳어진다는 말처럼 지금은 완전히 제주도 생활에 적응해 가족관계가 더욱 끈끈해졌고 마음을 나누는 이웃도 생겼다.

회사에 대한 자부심, 대를 잇고 싶어요

엄마와 아빠 곁에 선 두 아들은 듬직한 청년의 면모를 풍겼다. 고등학교 2학년인 큰아들 김평안 군과 중학교 3학년인 작은아들 김주안 군은 까무잡잡한 피부와 밝은 미소가 똑 닮았지만 성격은 정반대다. 형은 듬직하고 조용한 성격이고, 작은아들은 외향적이고 애교가 많다.

“둘이 정반대예요. 엄마 입장에서서는 성향이 반반 섞였으면 좋겠어요. 큰아들은 듬직한 반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도통 말을 하지 않아 간혹 답답해요. 작은아들은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요즘 고민은 무엇인지’ 터놓고 이야기하니 이해할 수 있어서 좋죠.”

엄마는 고쳐줬으면 하는 바람을 은근히 내비치면서도 이내 말 잘 듣고 자기 할 일도 똑 부러지게 하는 착한 아들들이라며 자랑을 늘어놓는다.

학생인 두 아들의 장래희망에 대한 이야기가 화제에 오르자 작은아들은 분명한 어조로 “아빠처럼 에스-오일에서 일하는 것”이라고 꿈을 밝힌다. 흐뭇하게 쳐다보던 김종민 사우 역시 아들이

대를 이어 일하게 된다면 매우 영광스러운 일이 될 거라며 입을 뗐다.

“일단 평안이가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하지 않을까? 저는 제가 맡은 역할을 다하면서 우리 아들 세대들이 역량을 펼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야겠죠.”

김종민 사우 가족의 바람은 딱 하나다. ‘지금처럼만 행복하게!’ 다른 욕심은 없다. 늘 그랬듯이 서로를 위하고 아끼면서 살아갔으면 하고 바란다. 이 가족의 작지만 굳건한 소망은 어떤 어둠 속에서도 서로를 밝혀주는 빛이 될 것이다.



엄마가 가족에게

사랑하는 여보!♥ 우리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하며 늘 변함없이 남편의 자리, 아빠의 자리에 있어줘서 감사해요. 든든한 평안아, 건강하게 잘 자라줘 고맙고, 귀염둥이 주안아. 애교로 늘 웃음을 줘서 고맙다. 지금처럼 서로 사랑하며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갑시다.

두 아들이 엄마 아빠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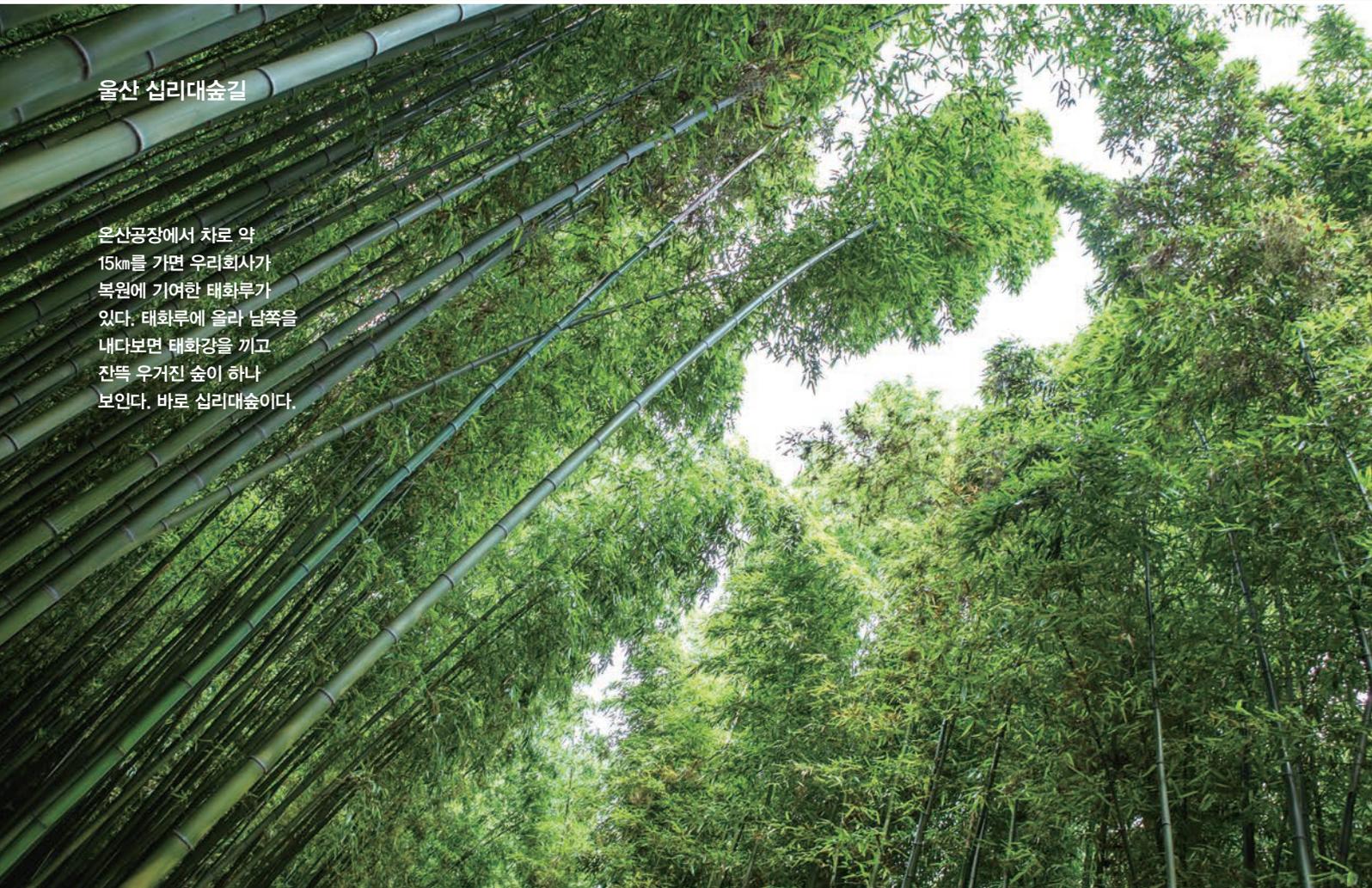
저희를 이끌어주시고 사랑해주셔서 감사해요. 앞으로 더 열심히 공부할게요. 그리고 아빠, 엄마께 효도할게요. 아빠, 엄마 사랑해요!

연료 1리터 나들이
사업장 인근 가볼만한
장소를 추천합니다

진행 송경란 사진 디자인소호



걷기만 해도 청량해지는 마음



울산 십리대숲길

온산공장에서 차로 약 15km를 가면 우리회사가 복원에 기여한 태화루가 있다. 태화루에 올라 남쪽을 내다보면 태화강을 끼고 잔뜩 우거진 숲이 하나 보인다. 바로 십리대숲이다.

죽음의 강에서 생명의 강으로! 살아남은 십리대숲

태화강은 10년 전만 해도 죽음의 강이라 불렸다. 인근의 들도 마찬가지였다. 쓰레기가 잔뜩 쌓인 태화들을 싹 밀어버리고 공장 등 건물을 세우자는 의견이 득세했었다. 십리대숲도 훨씬 너른 땅에 펼쳐져 있다가 점점 넓이가 줄어들었고 개발이 되면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그러나 100만 울산시민은 태화강과 십리대숲이 가지는 생태 상징성을 잘 알고 있었다. 십리대숲은 18세기에도 대밭이 있었다는 기록이 남아 있어 그 이전부터 대나무가 자생하고 있었던 것으로 예상되었기 때문이다. 시민들은 중지를 모아 391동의 비닐하우스와 3천500톤의 쓰레기를 제거하고 이곳에 태화강공원을 조성했다. 여의도공원의 2.3배에 달하는 태화강대공원은 1급수의 태화강과 푸르게 빛나는 대숲으로 완전히 재탄생했다.



십리대숲, 울산시민의 힐링터널이 되다

십리대숲은 생태적으로 매우 중요한 곳이다. 여름이면 백로가 찾아들어 번식했고, 겨울이면 까마귀가 몸을 피했다. 대나무가 하도 빼곡하게 서있어 천적을 피하기 좋은 환경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대숲 앞에 서면 반대편 풍경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대나무가 많다. 담양 대나무숲이 유명하다지만 울산 십리대숲은 도심에 위치해 시민이 쉽게 찾아갈 수 있어 더욱 매력적이다.

십리대숲 안으로는 십리대숲길이 나온다. 십리대숲길에 들어서면 마치 대나무로 된 터널에 들어선 기분이 든다. 온통 초록이 우거져 마음까지 초록으로 일렁인다. 대나무로만 이뤄진 숲이라 풍경은 늘 비슷하지만 숲 안으로 들어갈수록 청량함이 더해져 지루하지 않다.

숲길 중간중간에는 강이나 꽃밭 쪽으로 난 길이 있는데 이때 보이는 풍경을 찾는 재미가 쏠쏠하다. 특히 5월에 태화강대공원 초화단지로 나가면 꽃양귀비, 청보리, 안개꽃, 작약, 창포 등을 볼 수 있다. 태화강 쪽으로는 태화강 전망대가 있어 강과 십리대숲을 조망할 수 있다. 십리대숲의 중간쯤에는 죽림욕장이 있는데 이곳에서는 마음껏 숨을 들이켜봐도 좋다. 일반적인 산림보다 음이온을 더 많이 배출해 스트레스를 풀어준다.

태화강대공원 십리대숲길

주요수종	왕대, 황대, 오죽 십리대숲길 도보 소요시간 : 약 1시간
차량 주차	내비게이션 '태화강둔치주차장' 또는 '태화강둔치공영주차장' 검색 · 이용
대중교통(KTX울산역)	5003번 급행버스 '태화동'에서 하차(5분 도보)

어제를 품어

내일을 그리다

전남도립 옥과미술관

전라남도 곡성에 가면
오래된 철길을 따라
하얀 연기를 뿜는 증기
기관차를 만날 수 있을
정도로 고즈넉한 옛
풍경이 아름답게 남아 있다.

그 고즈넉한 곡성에
휴식과 치유가 필요한
사람들의 발걸을 기다리는
옥과미술관이 있다.

거장의 작품과 수집품, 미술관이 되다

옥과미술관의 시작에는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하나 있다. 바로 2014년 5월 별세한 아산 조방원 화백. 조방원 화백은 남종화의 대를 잇는 3대 거장 중 한 명으로, 전통을 계승하면서도 남도 정서를 더해 발전시킨 수묵화를 그려 독창적인 수묵산수의 세계를 펼쳤다는 평가를 받는 인물이다.

고고한 기품의 수묵산수처럼 그 또한 올곧은 성품으로 욕심 없는 삶을 살았다. 1980년 광주주의 이품을 목격한 이후 “세상이 어둡고 답답해져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다”며 한동안 붓을 놓고 시대의 이품을 온몸으로 겪어냈다.

1988년, 그는 평생 모아온 소장품 6천801점과

소유 대지를 전라남도에 기증하는데, 그의 올곧은 성품과 욕심 없는 삶이 옥과미술관의 토대로 이어진 것이다.

미술관 소장품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건 간찰이다. 간찰은 오늘날의 편지와 같은 것으로, 조선시대 선비들의 생활을 엿볼 수 있는 소중한 사료다. 이외에도 여러 서체를 담은 서첩류와 조선 후기 목판인쇄술을 가늠케 하는 ‘성리대전 목판각’도 중요한 희귀 자료다. 이렇듯 저마다의 역사적 가치를 담은 소장품은 상설전시가 열리는 미술관 아산2실에서 4개월 간격으로 교체되며 관람객을 기다린다.





옥과미술관은?

주소	전남 곡성군 옥과면 미술관로 288
대표번호	061) 363-7278
관람안내	3월~10월 : 09:00~18:00 / 11월~2월 : 09:00~17:00 ※ 매주 월요일, 1월 1일 휴관
입장료	일반 500원, 청소년·군인(24세 이하)·어린이·노인 무료 ※ 24세 이하 관람객과 예술인 패스카드 소지자 무료 ※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문화가 있는 날) 무료

김정삼 학예연구사가 전하는 깨알정보

- 야외 전시장을 둘러보세요. 꼬마 관람객의 발길을 잡는 조각 작품부터 숲에 숨어 자신을 찾아주길 기다리는 작품까지 많은 볼거리가 있습니다.
- 돛자리를 준비하세요. 미술관 뒤 참나무 숲에 누워 듣는 바람소리가 일품입니다.
- 두 개의 액자를 찾으세요. 아산2실로 가는 길목에서 자연의 변화에 따라 시시각각 변하는 특별한 작품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 시간을 넉넉히 잡고 오세요. 미술관 작품 관람뿐 아니라 주변 성류사의 아름다운 산책길과 목조불상, 탕화를 보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전통의 멋에 담아낸 현대적 감각

단청으로 고풍스러운 멋을 더한 한옥 형태의 미술관은 주변의 산과 어우러져 더욱 매력적이다. 우리가 흔히 만나는 미술관과는 다른 모습이라 미술관을 앞에 두고도 미술관이 어디 있냐고 물어오는 관람객이 있을 정도다. 고즈넉한 자연에 자리 잡고 한옥 고유의 멋을 은은히 풍기는 미술관의 평온함은 왠지 어려울 것만 같은 미술작품에 대한 거리감마저 잊게 한다.

전통적인 양식의 외관과는 다르게, 내부로 들어서면 현대적인 느낌의 간결한 공간이 새롭게 펼쳐진다. 전통과 현대를 오가며 작가와 관객이 소통할 수 있는 젊은 미술관이 되겠다는 의지가 느껴지는 풍경이다. 두 달 간격으로 바뀌는 아산실의 현대적 감각의 기획전시 또한 이러한 의지를 표현하는 한 축이다. 그

동안 독일의 추상사진작가 토마스 분슈부터 한·일 섬유예술, 아시아 현대미술 교류전 등 현대미술의 새로운 기록을 다뤘었다.



더욱 특별한 점은 저명한 작가보다는 미래 현대미술의 거장이 될 젊은 예술가들을 자주 만날 수 있다는 것이다. 연간 기획전 중에 두 번은 30~40대 작가의 초대 개인전을 개최하는데, 현대미술의 현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미래 미술계를 준비하고 작가들의 창작열에 불을 붙이려는 의도다.

젊은 예술가들뿐 아니라 지역주민들에게도 옥과미술관은 남다른 의미다. 도시에 비해 예술 향유의 기회가 부족한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옥과미술관은 존재만으로도 지역의 자랑이다. 특히나 인근 학교와 연계해 진행하는 체험활동은 아이들이 미술을 통해 새로운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활동이야말로 미술관 설립의 토대가 된 조방원 화백의 바람이 실현되는 것이 아닐까.

섬을 걷다

아름다운 섬이 품은 길을
찾아갑니다

글 · 사진 전부순



꼬막껍질을 얹어놓은 것처럼 보이는 두 개의 소나무 섬(솔섬). 썰물이면 선유도해수욕장과 연결되고, 공중하강체험시설 직라인 '선유 스카이라인'의 도착점이다.

신과 자연,

인간의 열망이 어우러진 이상향

군산 선유도

군산에서 남서쪽으로 50여 km 떨어진 선유도는 신선[仙]들이 내려와 놀다[遊] 갔을 정도로 비경을 간직한 섬이다. 장자도·무녀도·대장도를 비롯해 63개 섬(무인도 47개)으로 이루어진 고군산군도의 중심으로, '바다 한가운데 산들이 무리지어 있다' 해서 군산(群山)이라 칭했다.

고려와 송나라의 무역 중간기항지이고, 고려 말 최무선이 왜구를 무찌른 진포해전의 격전지이다. 조선 태조 때 군산도(지금의 선유도)에 왜구 침입을 막으려 수군진 만호영을 설치했다. 세종 때는 현재 군산 땅인 옥구군 북면 진포로 옮겨가 군산포진이 되고, 군산도는 옛 고(故)자를 붙여 고군산도-지금의 선유도로 남았다. 조일전쟁 시 명량해전을 승리로 이끈 이순신 함대가 전열정비와 휴식을 위해 찾기도 한 이곳에는 오랫동안 머무르고 싶은 이야기가 스며 있는 군산 구불길 8코스 '고군산길'이 있다.

군산연안여객터미널에서 선유도행 배편은 많다. 쾌속선은 50분, 일반 배는 1시간 30분이면 닿는다. 평일이지만 큰 배에 고작 열서너 명이 승선했으니 메르스의 여파인가 싶다.

선유도에 도착하자마자 먼저 관광안내소에서 지도 한 장을 챙겨 길을 나선다. 비릿한 바다 냄새와 소금기 섞인 바람, 해무에 감싸인 봉우리는 마치 이국땅에 온 듯하다. 구름이 많지 않아 길은 그 자체로 걷기에 좋고, 어느 길에서나 바다를 바라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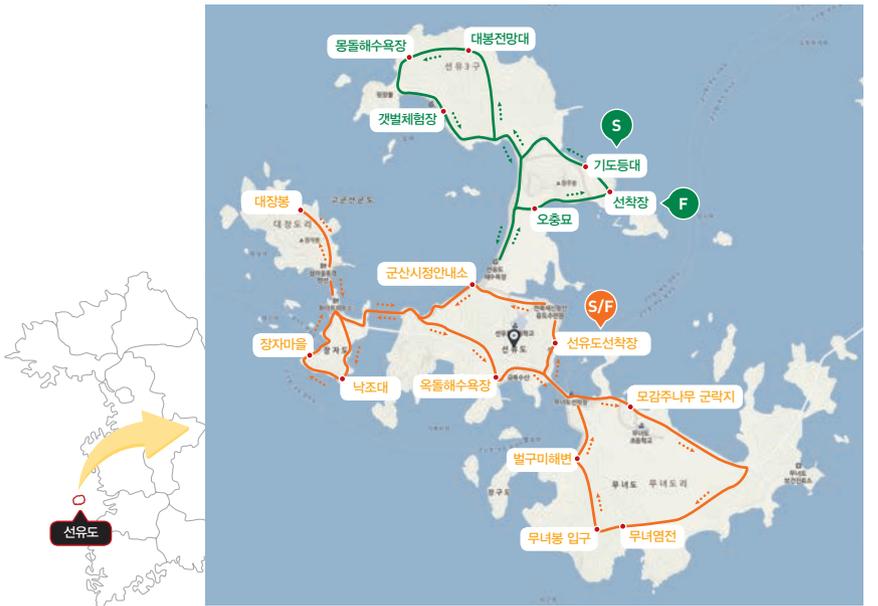
선유도해수욕장은 유리알처럼 흰 모래가 심리에 걸쳐 있다고 해서 ‘명사십리’라고도 부른다. 많은 섬이 방파제처럼 둘러 있어 높은 파도가 없고, 100여 m를 들어가도 수심이 허리밖에 차지 않아 안전한 물놀이를 즐길 수 있다.

해안은 파도가 만든 천연 사구(砂丘)로 본섬과 작은 섬이 연결된 특이한 구조다. 한쪽은 고운 모래가, 다른 쪽은 갯벌로 되어 있어 해마다 피서철을 맞이할 때는 겨우내 해안으로 밀려온 모래를 불도저를 이용하여 다시 바다 쪽으로 밀어넣는 작업을 벌인다.

왼쪽 장자도 방향으로 길을 잡고 선유봉 진입로를 지나니 초분공원이다. 고군산군도에는 옛 장례풍습인 풍장(風葬)의 초분(草墳)이 남

아 있다. 양지 바른 평평한 땅에 돌을 깔고 그 위에 시신을 안치한 뒤 짚으로 엮은 이엉을 덮는다. 2~3년 지나면 시신에서 육탈한 뼈만 수습해 매장하는 이중 장례문화다. 이미 물에서는 사라진 장제가 유독 섬에 남아 이어온 까닭은 폐쇄적 공간이란 특수성에 기인한다. 한정된 땅이라 상이 나면 묘 자리 확보에 어려움이 따르고, 또 정월에는 땅을 파지 않는다는 오랜 풍습 때문이다. 특히 시신의 뼈 중 하나라도 없으면 영원히 초분으로 남겠다고 한다.

1986년에 완공한 선유도와 장자도(壯子島)를 잇는 장자대교를 건너 왼쪽 산기슭의 낙조대를 오르면 면적 0.13km², 해안선 1.9km인 섬 전체가 조망된다. 가재미와 장재미를 합쳐 장자도라 불렀고, 힘이 센 장사가 나왔다는 전설이 있다. 동쪽과 남쪽 해안은 해식애가 발달하고 섬 전체가 바위여서 장관인데, 아침 해무 속에 봉긋이 솟아나는 이웃 섬들은 숨이 멎을 만큼 환상적이다. 풍수상 말의 형국이라 선유도의 맥을 이은 큰 산이 에워싸고, 서해를 바라보며 우뚝 솟은 사자바위가 먼 바다에서 오는 액운까지 막아주어 큰 인물이 많이 난다는 길지다. 천연항으로 바다에서 조업하다가 태풍이나 폭풍을 만나면 이곳으로 피신했다. 이웃한 위도와 같은 조기어장이라 조기 철에 고깃배가 불야성을 이뤄 ‘장자어화(壯子漁花)’가 비롯됐고, 1990년대까지 멸치포구로 유명세를 타 고군산군도에서는 가장 풍요로운 섬이다.



<선유도 트래킹 코스>

TIP.



1코스



장자마을에서 낚시체험장을 지나 작은 콘크리트 다리를 건너면 대장도다. 대장봉(142m) 기슭에 웅기종기 자리한 마을은 한 폭의 그림을 연상케 하는 평화로운 어촌이다. 북쪽 작은 바위섬에는 세계적 희귀조인 천연기념물 제326호 검은머리물떼새와 가마우지 서식처가 있고, 대장봉 남쪽 종턱에 아기를 업은 모양의 장자할매바위가 우뚝 솟아 바다를 내려다본다. 할매바위를 보며 사랑을 약속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속설이 있어서일까. 많은 선남선녀들이 그들만의 사랑을 확인하러 이곳을 찾는다.

이제 오던 길을 되돌아 나간다. 장자대교 건너 오른쪽 선유봉 가는 길이 공사로 막혔다. 할 수 없이 초분공원을 지난 삼거리에서 새로 닦은 길로 들어서니 오른쪽으로 터널 뚫는 공사가 한창이다. 분능적으로 우측 고즈넉한 산길을 따라 내려서니 아늑한 옥돌해수욕장이다. 해변을 채운 부드러운 옥돌이 주변 기암괴석과 어우러져 멋진 풍광을 이루고, 해안선을 따르는 나무데크 길은 통계마을로 접어든다. 예서 작은 언덕 하나를 넘으면 선유도와 무녀도를 이어주는 선유대교다. 바람 타는 구름처럼 코발트색 바닷물의 아름다움을 맘껏 감상하며 고려 말 이 씨가 마을을 이뤘다는 무녀도에 들어간다. 다리 하나 건넌 것 뿐인데 분위기는 사뭇 다르다. 사람들의 발걸음을 타지 않아 특유의 섬마을 분위기가 잘 살아 있다.

무녀봉 앞에 있는 장구섬과 술잔 모양의 섬이 마치 '무당이 굿을 하며 춤추는 것처럼 보인다' 해서 무녀도(巫女島)라 불렀다. 원래 이름 '서드이'는 '서둘러 열심히 일해야 살 수 있다'는 뜻처럼 팍팍한 섬 생활의 고단함을 이겨내기 위함이다. 해태양식을 많이 하는 아주 부지런한 섬에 세계적인 희귀종 모감주나무 40여 그루가 군락을 이루고 있다. 주로 해안과 인접한 곳에 자라고, 한 방에서 간염·요도염·소화불량·장염·이질치료제로 쓰는 꽃이 7월에 피고, 10월에 맺는 열매는 검고 둥글며 윤기가 있어 염주를 만든다.

작고한 군산 출신 최현칠 옹이 1951년 인부 3백여 명과 함께 1년간 방조제를 쌓아 이룩해 낸 총 16만 평의 간척지가 완양염전(무녀염전)이다. 한때 무녀도 최고 번영을 가져다 준 염전은 석양노을처럼 갯바닥에 어지러이 박힌 웅기파편만을 남긴 채 더 이상 소금을 내지 않는다. 쓸쓸한 발길은 소금밭을 가로질러 벌구미해변을 지나 선유도 새터마을에서 하루를 마감한다.

이튿날은 선유3구 일대를 둘러보는 여정. 민박집을 나와 신기리 마을벽화를 구경하고 해무 자욱한 선유3구 선착장에서 두 손 합장한 기도등대를 바라보며 작은 소원 하나 세우고 대봉전망대를 향한다.



하이커들이 자전거를 타고 선유해수욕장 방향으로 가고 있다. 2,13㎢ 면적의 선유도는 망주폭포를 비롯해 명사십리·평사낙안·삼도귀범·장자어화·무산12봉·월영단풍·선유낙조까지 오래도록 가슴에 남는 선유팔경을 자랑한다.

양지 바른 평평한 땅에 돌을 깔고 그 위에 시신을 안치한 뒤 짐으로 엮은 이엉을 덮고 2~3년 지나면 시신에서 육탈한 뼈만 수습하여 매장하는 초분(草墳)은 바람을 이용한 풍장(風葬)이다.



낙조대에서는 장자도와 대장도가 한눈에 조망된다. 오른쪽으로 선유도와 장자도를 잇는 새로운 다리가 공사 중이다.



구름이 많지 않은 선유도는 섬 전체가 걷기 좋고, 어느 길에서나 바다 풍경을 볼 수 있다. 해안선을 따라 설치된 나무데크가 옥돌해수욕장에서 통계마을을 이어준다.

선유도를 중심으로 동쪽은 무녀도·신시도·야미도가, 북쪽에 황경도·방축도·명도·말도가, 서쪽으로는 관리도가 위치하여 사이좋은 형제처럼 붕긋붕긋 솟아 있다. 길손들의 시선을 잡는 본재들을 보는 즐거움도 제법 쏠쏠하다.



흰 모래가 심리에 걸쳐 있다고 해서 '명사심리'라 부르는 선유도해수욕장은 높은 파도가 없고, 100여 m를 들어가도 수심이 허리밖에 차지 않아 안전한 물놀이를 즐길 수 있다.



들머리 찾기가 녹록지 않았으나 어렵게 찾은 울창한 솔숲 길은 계단으로 연결되고 20분쯤 걸려 전망대에 오른다. 짙은 해무의 시샘인가. 선유3구·망주봉·선유해수욕장·선유봉·장자대교가 어느새 숨어버렸다. 바람이 안개를 걷어가기를 바랐지만 인력으로 할 수 없는 일, 아쉬운 한 자락 깔아두고 몽돌해수욕장으로 잔걸음을 재촉한다.

몽돌해수욕장은 너무나 작아 처음에는 해수욕장인지 몰랐다. 그러나 동네 사람들은 웃으며 "해수욕장이 맞다"고 귀뽀한다. 동그마한 몽돌로 가득한 양중맞은 공간, 오랜 세월 파도에 씻기고 부딪는 소리가 이색적인 해변에서 미완의 교향곡으로 완성된다. 정면의 방축도와 작별을 하고 작은 언덕을 넘어 외길을 걸어 전망데크에 서니 선유도 일대가 펼쳐지는데, 그중 해양레포츠인 '선유 스카이라인' 일명 줌라인이 눈에 띈다. 솔섬까지 7백여 m의 바다를 횡단하는 공중하강체험 시설이다.

불끈 솟은 봉우리에서 강렬한 에너지가 발산되는 듯, 보는 것만으로도 분위기를 압도하는 망주봉(152m)에는 두 가지 전설이 전한다. 하나는 이곳에 유배 온 선비가 매일 산봉우리에 올라 한양에 있는 왕을 그리워했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조선이 망한 뒤 정 도령이 나타나 계룡산에 도읍하여 몇 백 년을 다스리고, 조 씨의 가야산 도읍, 그리고 완산에서 범 씨의 나라가 시작된다는 예언서 '정감록'에 연원을 둔다. 즉, 젊은 부부가 북쪽을 바라보며 천년왕국을 건설하기 위해 도래한다는 범 씨를 기다리다 지친 나머지 두 개의 봉우리로 굳어졌다는 이야기로 큰 봉우리는 남편, 작은 바위는 아내라고 한다. 흥길동이 울도국을 건설했듯 과거의 문학에서 섬은 착취와 수탈이 없는 이상향이었다. 전남 화순에 누워 있는 '와불'처럼 진정한 백성의 나라를 이끄는 미래의 지도자를 기다리는 민중들의 열망이 망주봉의 전설을 지어낸 것은 아닐까.

신과 자연, 인간이 어우러져 사는 게 가장 이상적인 삶일 것이다. 망주봉 서쪽 기슭에는 군산시 향토문화유산 제19호로 지정된 오룡묘(五龍廟)가 있다. 삶과 죽음을 바다에 의탁했던 섬사람들이 바다의 신(용신)을 모시는 당집이다. 새터마을에서 민박을 하며 선유도해설사로 활동했다는 송승현 씨는 "오룡묘에는 두 채의 작은 집이 있는데, 윗당은 임씨 할머니 당으로 산신과 칠성님을 모신 화상이 있었고, 아랫당에는 다섯 용(신인) 최씨부인·명두아씨·수문장·성주·오구유왕의 화상을 봉안했으나 오래 전 도난당했다"면서 "앞의 토속신은 해안가 무속신앙에서 흔히 듣고 볼 수 있는 이름이나 '오구유왕'은 무엇인지 모르겠다"고 부연한다. 당집은 섬의 역사가 시작된 이래 섬사람들의 안전과 풍어를 기원한 정신적인 지주였다. 그러나 1990년 마지막 단골무당이 죽은 뒤 인간과 신이 공존했던 흔적은 이제 눈길조차 닿지 않는다. 외면당한 채 방치된 모습에 연민을 느끼며 송승현 씨가 들려준 임씨 할머니의 전설을 되뇌어본다.

옛날 임씨 성을 가진 자가 낳은 딸아이는 태어나면서부터 양손 주먹을 꼭 쥐고 있었다. 스무 살이 넘었을 때까지 단 한 번도 손을 펴지 않았다. 부모들이 과년한 딸을 시집보내려 준비하던 중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다. 임씨 집안에서 지관을 대어 신시도에 있는 대각산 용머리 옆에 묘 자리를 정한 뒤 인부들이 구덩이를 팔 때쯤, 갑자기 구름 같은 뿌연 연기 속에서 흰 학 한 마리가 날개를 펼치며 오르다가 떨어져 죽었다. 사람들이 놀라 정신을 놓았고, 이를 지켜보던 딸이 느닷없이 쓰러져 운명을 달리 했다. 당연히 온 동네가 발칵 뒤집어졌는데, 이상한 일이 생겼다. 한 번도 펴지지 않던 딸의 손이 그때 펴졌고, 손바닥에는 임금 왕(王) 자가 새겨져 있던 것이다. 사람들은 통곡하며 '죽은 딸이 왕이 되든지 왕비가 될 운명이었는데 그만 죽어버렸다'고 예사롭게 않게 여겼다. 더구나 다음 날에는 시집갈 때 쓰려던 돼지 여덟 마리도 죽어버렸다. 마을 사람들은 슬픈 마음을 추스르며 학이 나왔던 자리에 임씨 딸을 묻고, 그 옆에 아버지를 묻었다. 이때 죽은 임씨 딸을 오룡묘에 봉안하여 '임씨 할머니'라 부르고 기려왔다.

100세 습관

건강한 삶을 위한 바른 자세습관을 알려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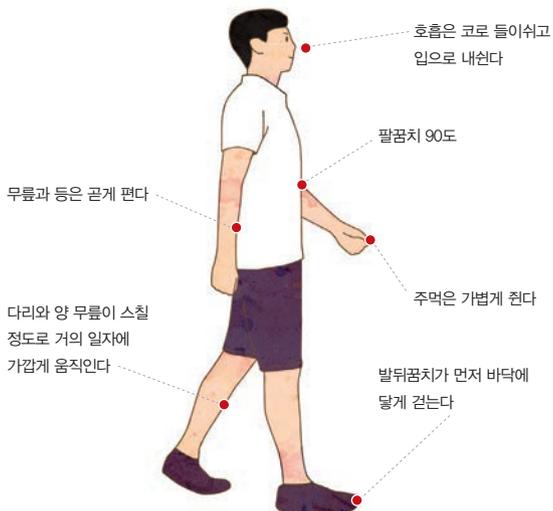
도움말 조하영(서울성모병원)



믿으세요

걷기만 잘 해도 건강해져요

걷는 자세 습관



걷는 시간이 점점 줄고 있다. 먼 거리를 이동할 때는 자동차를 이용하고, 높은 층을 오를 땐 계단 대신 에스컬레이터나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는 게 일반화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걷는다는 행위는 사람이 이동할 때 가장 기초적인 움직임이라는 점에서 간과할 수 없다. 특히 너무 일상적인 행위라 바른 걷기에 대해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신경 써 알아둘 필요가 있다.

걷기는 신체활동의 기본 중 기본

걷기는 사람이 이동을 하기 위한 최소한의 행위다. 아침에 일어나 화장실에 가고 회사 또는 학교로 향하고 약속장소로 가는 모든 활동의 기본이 바로 걷기다. 숨 쉬는 공기에 대해 평소에 인지하지 못하듯이 걷기 역시 '내가 걷고 있다'는 인지가 거의 없다.

그런데 걷기가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문명의 이기가 늘어나면서 걷는 행위 자체가 줄어들다 보니 삶의 기본으로 여기던 행위가 낯선 행위로 받아들여지기 시작한 것이다. 또 원활한 신진대사를 위해서라도 신체활동이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보니 걷기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진 면도 있다.

기본이라고 강조했지만 생각보다 많은 사람이 바르게 걷고 있지 않다. 잠시만 길에 서서 행인을 관찰하더라도 구부정하게 걷는 사람, 터벅터벅 걷는 사람, 팔자걸음을 걷는 사람,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느라 고개를 숙인 사람이 태반이다. 여성의 경우 굽이 높은 신발 때문에 제대로 걷지 못하고 있다.

잘못된 걸음걸이는 사람을 쉽게 피로하게 한다. 구부정한 자세는 척추 변형을 초래해 척수 신경과 신경계가 눌리면서 다양한 질병과 통증의 원인이 된다. 혈액순환과 요통, 변비, 신경통, 부종 등이 생길 수도 있다.

걷는 자세 습관의 바른 방법은 아래와 같다.

- 엉덩이가 뒤로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허리를 곧게 세운 채로 걷는다.
- 발뒤꿈치, 발바닥, 발가락 순으로 걸음을 내딛는 3박자보행으로 걷는다.
- 발이 벌어지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양발을 11자 모양을 유지해 걷는다.
- 양발의 간격은 최대한 좁혀서 골반 안쪽으로 들어오도록 걷는다.
- 무릎 관절은 곧게 펴고 야트막한 언덕을 오른다는 기분으로 걷는다.

바른 자세로 꾸준히 걸으면 심장의 혈액순환이 좋아져 심질환의 위험이 감소하고 산소 섭취량이 증가한다. 면역기능이 향상되고 관절염을 예방하며 바른 체형을 가질 수 있다.

계단을 내려갈 때, 산에 오를 때의 걷는 자세 습관

걷는 상황이 평지에서서만 있는 건 아니다. 특히 주의해야 할 두 가지 상황의 바른 걷기 방법에 대해 소개하자면 계단을 내려갈 때와 산에 오를 때다.

계단을 내려갈 때는 발치를 내려다보게 돼 몸이 구부정해지는 경우가 많다. 가급적 상체를 수직이 되게 유지한 상태로 발바닥이 한꺼번에 계단 지면에 닿지 않게 가볍게 내딛는 게 좋다. 팔은 흔들지 말고 뒷발로 균형을 잡은 상태에서 무릎을 구부려 내려가야 한다. 발가락 부분은 계단의 바깥으로 나오는 게 좋다. 발끝이 계단에 걸려 넘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산에 오를 때에는 평지를 걸을 때보다 나쁜 자세로 걷기 쉽다. 비탈길에 오르다 보면 몸의 중심이 뒤로 쏠리기 때문이다. 가장 나쁜 자세는 허리를 구부리고 엉덩이를 뒤로 빼고 걷는 자세인데, 허리를 곧게 세우되 몸의 무게중심에 따라 몸 전체를 앞으로 기울이는 게 좋다.

계단을 내려갈 때의 나쁜 자세와 바른 자세



○ 상체가 수직이 되게 유지하고, 뒷발로 균형을 잡고 무릎은 구부린다. 발가락 끝은 계단 바깥으로 나오는 게 좋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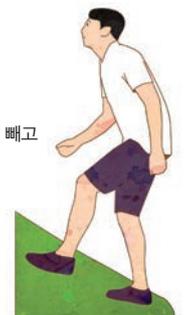
✗ 팔을 흔들고 허리를 구부리고, 무릎을 편 상태로 발바닥 전체로 내딛는다.

등산할 때의 나쁜 자세와 바른 자세

○ 허리를 곧게 세우되 몸의 무게중심에 따라 약간 앞으로 기울인 자세



✗ 허리를 구부리고 엉덩이를 뒤로 빼고 걷는 자세



나의 롤모델

사우의 롤모델로부터
성공 열쇠를 찾아봅니다

글 김관희(시설투자기획팀)

**점음을
무기로**

**도전하는
열정가**

시설투자기획팀 김관희 사우의 롤모델
'마크 저커버그'

옳다고 믿으면 끝까지 밀고 나가는
힘이 마크 저커버그의 동력이다.
시대를 앞서나가는 혁신은 때로
반대에 부딪치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신념을 가진 자가 승리한다.



• 내 인생의 롤모델 •

우연히 보게 된 영화 <소셜 네트워크> 덕분에 처음으로 마크 저커버그에게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저커버그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페이스북'을 만들었는데, 시대를 앞서서 서비스의 창조자라고 일컬을 만하다. 그를 보면 언제나 새로운 도전을 멈추지 않는 열정가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사용자의 욕망을 따라가기보다는 앞서나가기 때문에 당황하거나 반발하는 사람들도 있다. 하지만 비난받을지언정 지향하는 방향이 올바르다는 확신이 있고 강한 동기가 있으므로 결국에는 성공해내는 것이다.

그는 늘 같은 티셔츠를 입는데, 한 학생이 그에게 매일 같은 티셔츠를 입는 이유를 물었다고 한다. 저커버그는 이렇게 대답했다.

“나는 최대한 단순하게 살기 위해 노력한다. 가장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노력 외에 사소한 결정은 가능한 한 하지 않으려 한다. 기력 무엇을 입을지, 아침에 무엇을 먹을지 따위의 사소한 의사 결정이라도 누적되면 피로가 쌓이고 에너지가 소모되기 때문이다. 내 모든 에너지를 최고의 서비스를 만들고 사람들의 목적 달성을 도우며, 세상을 연결하는 데에 쓰고 싶다.”

나는 이 에피소드가 특히나 기억에 남았다. 해야 할 일을 결정하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 나아가는 시점에서 이렇듯 강한 목적의식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저커버그는 “당신이 진짜 하고 싶은 일을 한다면 모든 것은 쉬워진다”라고 말했다. 어쩔 수 없이 하는 일이 아니라 '진짜 하고 싶은 일'이라는 생각을 가진다면, 인생이 더 즐거워지지 않을까.



'소통의 혁신'으로 시대를 바꾸다

마크 저커버그는 세계 최대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페이스북'의 CEO이다. 페이스북은 저커버그가 하버드대학 재학 중에 네 명의 학우들과 함께 만든 학내 커뮤니티로 시작되었다. 처음에는 하버드대학교의 학생들만 이용할 수 있는 폐쇄적인 구조였지만 이후 전국의 대학교, 고등학교 학생들도 이용할 수 있게 되었고 2006년 9월부터는 13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게 되었다. 페이스북의 가능성을 일찍이 알아본 야후(YAHOO)에서 10억 달러를 제시하며 인수를 제안했지만 저커버그는 거절했다. 그리고 벤처 캐피털로부터 2억 5천만 달러를 투자받아 직접 경영해온 결과 페이스북은 2015년 5월 기준으로 전 세계 12억 명의 가입자를 확보한 세계 최대 SNS 사이트가 되었다. 그는 현재에도 페이스북의 회장 겸 CEO로서 사업을 확장해가고 있다.

마크 저커버그는 미국 뉴욕 주 화이트 플레인스에서 태어났다. 아버지 에드워드는 치과 의사이고 어머니 캐런은 정신과 의사였다. 그는 뉴욕 주 돔스페리에서 세 명의 여자 형제들과 함께 자라났다. 유년기에 유대교 교육을 받았으나 성인이 된 이후로는 스스로를 무신론자라고 밝힌 바 있다.

그는 중학교 시절부터 컴퓨터 프로그래밍에 능했다. 1990년대에는 아버지로부터 프로그래밍 언어에 대한 지식을 배웠으며, 소프트웨어 개발자에게 개인 지도를 받거나 집 근처에 있는 대학원에서 관련 수업을 청강하기도 했다. 그는 프로그래밍 작업을 즐겼다. 특히 통신 관련 툴을 다루거나 게임하는 것을 좋아했다. 고등학교 재학 중에 인공지능을 이용한 음악 감상 플레이어를 제작한 뒤 마이크로소프트사와 아메리카 온라인(AOL)사로부터 채용하겠다는 제안을 받았으나 이를 거절하고 2002년 하버드 대학교에 입학했다. 그는 대학에서 컴퓨터 과학 및 심리학을 전공했다.

정보화 시대에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로 자주 거론되는 저커버그는 늘 혁신을 추구한다. 페이스북이 사내에서 실시하는 '해커톤(Hackathon)'이라는 행사를 통해 그의 도전정신을 엿볼 수 있다. 이는 프로그래머들이 하룻밤 동안 새로운 프로젝트를 구상하고 구현하는 일종의 마라톤인데, 저커버그는 직원들과 함께 직접 행사에 참여하기도 했다. 행사는 '짧은 시간 안에도 훌륭한 무언가를 만들어 낼 수 있다'는 생각에서 출발하며, 오늘날 페이스북을 이끌어가는 하나의 아이디어이자 자기 자신의 가장 중요한 개성이라고 저커버그는 말했다. 실제로 페이스북의 대표 기능인 '좋아요(like)'가 이 해커톤 현장에서 탄생했다고 한다.

열린 서재

자료실에서 사우들이 가장 많이 읽은 인기 도서를 소개합니다

도움말 정재연(반디앤루니스 북매니저) 자료제공 박은정(기술교육팀)

현대사 격랑의 끝을 달리는

영감님의 모험

〈창문 넘어 도망친 100세 노인〉
요나스 요나손



〈창문 넘어 도망친 100세 노인〉을 시작하게 된 이유는 순전히 제목 때문이다. 아주 오래 전에 이 긴 제목을 만들고는 나 스스로도 그 이야기가 너무나도 궁금했다. 그래서 소설을 쓰는 내내 도대체 어떻게 진행될까 하는 내 궁금증을 해소하면서 써내려갔다.

- 요나스 요나손



〈창문 넘어 도망친 100세 노인〉, 이렇게 읽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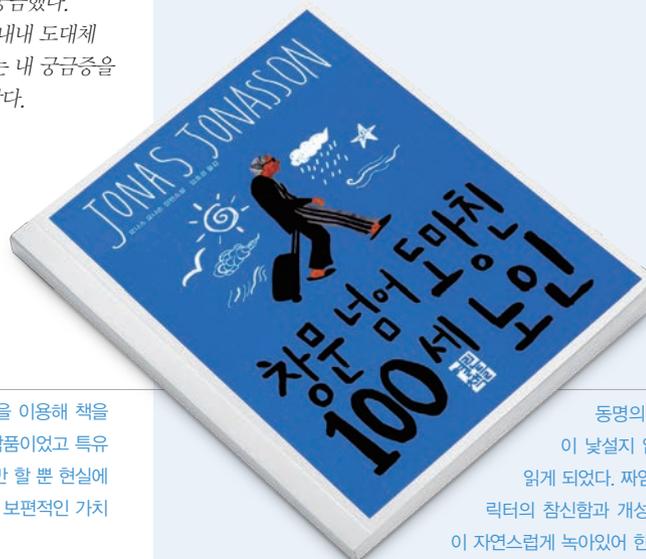
아내의 권유로 두어 달에 한 권 정도씩 사내 도서관을 이용해 책을 읽는다. 세계사에 문외한이었음에도 관심이 샘솟는 작품이었고 특유의 위트가 계속해서 웃음을 유발했다. 이상을 꿈꾸기만 할 뿐 현실에 얽매어 실행에 옮기지 못하는 대다수의 직장인들에게 보편적인 가치관 내에서 일탈하는 계기가 될 것 같다.

- 글 권택기(유행1과)

스웨덴의 작가 요나스 요나손이 장편소설 데뷔작 〈창문 넘어 도망친 100세 노인〉으로 전 세계 서점가를 강타했다. 〈창문 넘어 도망친 100세 노인〉은 100세 생일날 슬리퍼 바람으로 양로원의 창문을 넘어 탈출한 '알란'이 우연히 갱단의 돈기방을 손에 넣고 자신을 쫓는 무리를 피해 도망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담은 작품이다. 이 가운데 격변하는 세계의 주요 현대사에 휘말리며 살아온 알란의 인생을 유쾌하게 그려냈다.

작가 요나스 요나손은 대학을 졸업한 뒤 15년간 기자로 일했고, 1996년에는 OTW라는 미디어 회사를 설립, 직원 100명에 이르는 성공적 기업으로 성장시켰다. 그러나 고질적인 허리통증 때문에 회사를 매각하고 20여 년간 일해 온 업계를 떠나기로 결심한다.

그는 2007년 스위스 티치노로 이주한 뒤 '감히 첫 소설에 도전할 만큼 성숙했다'고 생각하고 오랫동안 구상한 〈창문 넘어 도망친 100세 노인〉을 집필한다. 2009년 처음 출간되어 인구 9백만의 나라 스웨덴에서 1백만 부 이상 판매되는 기록을 세우고, 전 세계적으로 도합 800만 부 이상이 팔렸다. 현재도 판권이 팔린 세계 곳곳에서 번역되면서 인기를 이어가고 있고, 영화화돼 개봉하기도 했다.



동명의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제목이 낯설지 않고, 표지가 독특해 이 책을 골라 읽게 되었다. 짜임새 있고 유쾌한 이야기의 전개, 캐릭터의 참신함과 개성, 그리고 무엇보다도 역사적 사건이 자연스럽게 녹아있어 한번 잡은 책을 손에서 놓을 수가 없었다. 현재에 충실하면서 자신의 뜻대로 사는 삶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게 되었다.

- 글 김동훈(정유공정Upgrading과)

※ 본 도서는 지난 6월 1~30일 공장 자료실에서 높은 대여 순위를 기록했습니다.

문화 콘텐츠

〈창문 넘어 도망친 100세 노인〉과 함께 즐기면 좋을 타 장르 콘텐츠

{ 영화 }



〈창문 넘어 도망친 100세 노인〉

원작 소설을 잇는 좌충우돌 100세 할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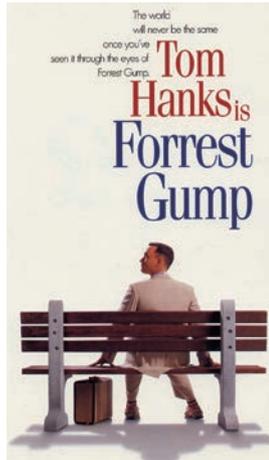
영화 〈창문 넘어 도망친 100세 노인〉은 동명의 원작소설을 바탕으로 영화화됐다. 소설의 내용과 크게 다른 내용은 없지만 소설에 등장하는 스탈린, 김일성, 아이슈타인 등 역사 속 인물들을 때로는 현실적으로 때로는 희화화하며 재현해 재미를 더한다.

낮은 창문, 그러나 100세 할아버지에게는 그 창문을 넘는 일도 쉬운 일이 아니다. 겨우 한 자도 안 되는 높이를 뛰어내렸을 뿐이지만 무릎은 후들거리고 관절이 삐걱거린다. 영화 초반에 등장하는 이 장면은 사람들에게 생각할 거리를 던져준다.

개봉 | 2014년

장르 | 모험 · 코미디 · 드라마

{ 영화 }



〈포레스트 검프〉

'현대사 좌충우돌'은 내가 원조

영화 〈창문 넘어 도망친 100세 노인〉을 본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포레스트 검프〉를 떠올렸을 것이다. 왜냐하면, 주인공의 삶이 역사적인 사실과 연결되며 당시를 재연하는 방식이 〈포레스트 검프〉에서 먼저 사용됐기 때문이다.

영화 〈포레스트 검프〉는 아이큐가 75인 '포레스트 검프'의 일생과 사랑에 대한 영화다. 포레스트의 삶을 따라가다 보면 미국의 30년 역사와 풍경을 만난다. 베트남전쟁의 현장과 케네디 대통령, 닉슨 대통령, 존 레논, 엘비스 프레슬리의 모습, IT기업 애플의 시작까지 발견할 수 있다.

개봉 | 1994년

출연 | 톰 행크스

{ 전시 }



〈Beauty Beyond Beauty〉

영화보다 아름다운 오드리 헵번의 삶

20세기 가장 아름다운 여인이자 유니세프 친선대사로 활동하며 나눔의 삶을 실천한 여배우 '오드리 헵번'의 일생을 재조명하는 기획 전시가 부산에서 열린다. '아름다움 그 이상의 아름다움'이라는 주제로 세계 최초로 기획됐다.

이 전시는 오드리 헵번의 출생부터 죽음까지 전 일생을 대하드라마 형식으로 구성했다. 배우 오드리 헵번의 모습뿐만 아니라 여성, 어머니, 인간으로서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오드리 헵번이 직접 그린 그림들, 직접 촬영한 홈 비디오를 볼 수 있고, 카쉬, 필립 할스만 등 유명한 사진작가가 찍은 오드리 헵번 사진도 전시된다.

기간 | 2015년 9월 6일까지

장소 | 부산영화의전당 비프힐 특설미술관

170

세상

햇살나눔

언제나 이웃과 함께
행복한
미래를 그리며
변치 않는
마음으로
은 세상에 따뜻한
전하는
햇살나눔의
진심 어린 활동을
매달 정리해
소개합니다.

전국 방방곡곡
나눔의 손길이 필요한 곳에

달려갑니다

주유소사회봉사단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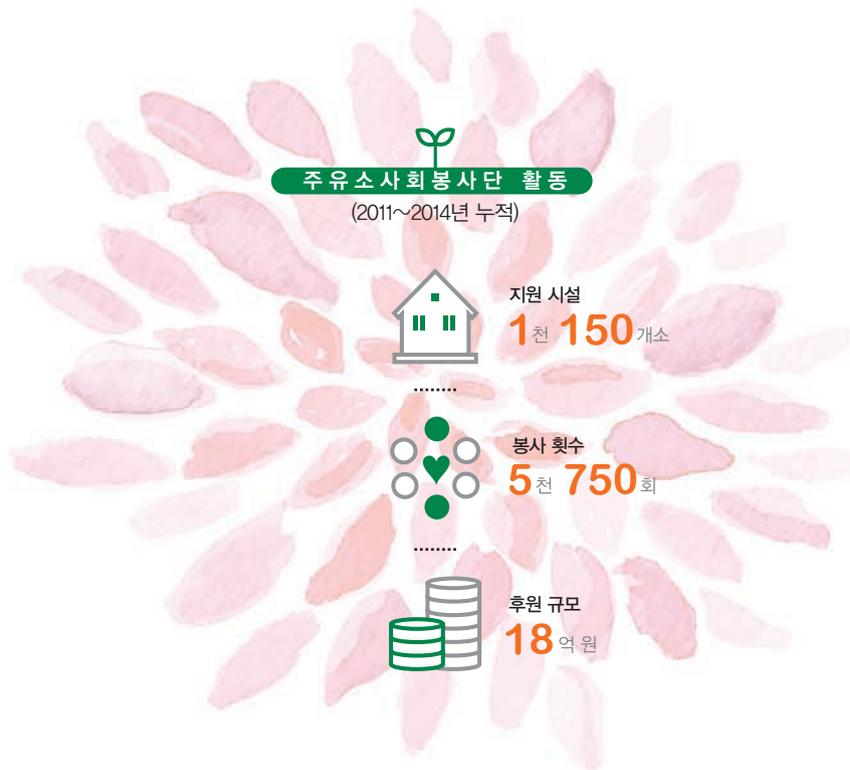


울산지사 주유소사회봉사단



대전지사 주유소사회봉사단

우리회사는 지난 2011년 3월 지역사회 나눔 실천의 일환으로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함께하는 '주유소 나눔 N 캠페인'을 체결했다. 이를 통해 전국 방방곡곡 햇살나눔의 사랑을 전하는 주유소사회봉사단의 활약으로 현재까지 총 1천150개 복지시설에 18억 원을 후원해오고 있다. 주유소 사회봉사단은 우리 계열주유소 가운데 심사를 거쳐 '나눔주유소'로 선정된 300개소의 전국 봉사 조직이다. 봉사단을 구성하는 주유소 대표자들은 우리 임직원과 함께 각 지역 봉사기관을 찾아가 나눔의 손길이 필요한 현장을 직접 살피고, 기부와 봉사활동으로 이웃을 돌본다. 지역 경제와 사회를 선도하는 모범적인 리더로서 우리 계열주유소 대표자들이 소외계층을 지원하는 인프라를 구축해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다.



울산지역 주유소사회봉사단은 최근 길지역아동센터를 방문했다. 이곳은 조손가정과 기초생활수급자 자녀를 대상으로 학습지도와 문화체험 등을 지원한다. 우정주유소를 비롯해 고바우, 산업로, 동남, 곡천, 오성, 내동주유소 대표자가 함께한 봉사단은 시설물 청소와 유류비 전달로 나눔의 뜻을 펼치고, 다음 번 방문에 학생들과 만나 한층 더 친근한 시간을 갖기로 약속했다. 뒤이어 부성주유소와 새한·청원·무룡산·세원·오성·삼일주유소 대표자로 구성된 주유소사회봉사단이 울산노인의집을 찾았다. 시설 관계자와 만나 난방·차량운행 등을 위한 유류비 100만 원을 전하고, 시설 운영내역과 봉사가 필요한 영역, 행사 등에 관해 이야기를 나눴다.

한편 대전지역 주유소사회봉사단은 이웃사랑복지재단 '버팀목'을 방문해 나눔을 실천했다. '버팀목'은 정신질환을 가진 이웃들에게 적절한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사회 안에서 다양하게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 성공적인 사회 복귀를 돕는 시설이다. 레인보우주유소 대표자와 김우흠 대전지사장을 비롯한 우리 직원은 시설 운영에 관한 제반 설명으로 이해를 넓힌 뒤 건물 내부 정리정돈에 힘썼다. 이어 난방과 차량 운행에 보탬이 되도록 주유상품권 100만 원을 전하면서 나눔의 손길이 절실한 지역사회 이웃들을 위해 활용해줄 것을 당부했다.

올해 주유소사회봉사단은 지사별 3개 팀으로 가동되고 있다. 이에 따라 각 팀은 관할 본부와 지사 임직원과 뜻을 모아 연 3회 이웃과 만난다. 여기에 연간 3억 3천만 원을 투입해 어려운 이웃의 삶을 보듬는다. 이로써 햇살나눔의 힘찬 맥박이 지역사회 곳곳에 전해지도록 주유소사회봉사단은 앞으로도 묵묵히 이웃을 찾아갈 것이다.



재활의지 희망 담은

음식 판매 완판!

강남·강북지사 주몽재활원 일일호프 지원

글 김기선(강남지사)



강남지사와 강북지사가 함께 봉사활동에 나섰습니다. 주몽재활원(서울시 강동구 상암로)이 개최한 일일호프 행사에 기금 후원과 티켓 구매, 봉사단 현장 봉사 등으로 동참한 것입니다.

주몽재활원은 '꿈에서도 뛰고 노력해 장애를 극복하고 재활하자'는 설립자의 각별한 의지로 세워졌습니다. 이곳에서는 장애어린이 재활과 자립기금 마련의 일환으로 해마다 5월에 일일호프 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행사 13회를 맞아 그 목적과 취지가 널리 알려지면서 지역사회의 큰 축제로 자리매김하게 됐습니다. 이 가운데 우리 봉사단은 기금과 일일호프 이용 티켓 구매로 100만 원을 전하고 현장의 일부 코너의 판매를 돕거나 설거지를 도맡는 등 힘을 보탤했습니다.

특히 이날 우리 봉사단이 맡은 두부김치와 가오리회무침 판매 코너는 일일호프 방문 손님들에게 최고의 인기를 누렸습니다. 장호근·김승현 사우의 구수한 입담과 여타 봉사단원들의 신속하고 정확한 배달 덕분에 코너별로 준비한 300인분 음식이 완판되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이웃한 판매 코너의 봉사자들과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이끄는 사이에 시간도 쏠살같이 지나갔습니다.

재활원 앞뜰을 활용한 일일호프 현장에 무척이나 많은 사람이 모였습니다. 지역시민과 각 기관 봉사단체, 봉사자들을 아울러 족히 1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현장에 함께했습니다. 이로 인해 각 코너에서 매진 행렬이 이어지고, 늦은 밤까지 환한 불빛 속에 유쾌한 이야기와 웃음이 넘쳤습니다. 판매를 마친 우리 봉사단은 앞서 사뒸던 티켓으로 현장의 음식을 맛보며 보람찬 하루를 마감했습니다.



아들처럼 어르신들의 말벗이 되어드릴게요

위하라복지센터 어르신과 부산아쿠아리움 나들이

글 피준호(탈환1과)



붉은 장미와 신록이 아름다운 6월의 첫 주말, 몸과 마음이 지치기 쉬운 여름의 시작에 분해 1부봉사단은 나눔 실천의 작은 걸음을 디뎠습니다.

공정 일정 탓에 봉사단 전원이 참석하지 못해 걱정이 많았는데 어르신들께서 건강하고 밝은 웃음으로 맞아주셔서 마음을 놓을 수 있었습니다.

봉사단은 어르신들과 회사버스를 타고 부산아쿠아리움으로 출발했습니다. 저와 짝을 이룬 어르신은 왼팔이 많이 불편하고 머리를 다치셔서 말씀이 분명하지 않았지만 부산까지 가는 동안 고향이야기와 군대이야기로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연세가 80세인데도 군대이야기를 하시는 걸 보면 마음은 언제나 청춘입니다.

부산아쿠아리움에 도착해 우리는 1대로 어르신을 모시고 관광을 시작했습니다. 눈이 불편하신 어르신께서 좋은 풍경을 보지 못하는 것에 속이 상했습니다.

두 시간으로 계획한 아쿠아리움 관광은 96세인데도 제일 건강하시고 웃음도 제일 많으셨던 어르신께서 선두에서 일행을 빨리 이끄는 바람에 45분 만에 끝났습니다. 그 뒤에는 해운대 비닷가를 잠시 산책하고 점심식사 장소인 기장의 한 식당에서 한정식을 먹었습니다.

울산으로 돌아오는 길에 손정자 어르신 노래를 들을 기회가 생겼습니다. 가사와 박자는 틀렸어도 그분 삶의 질곡이 묻어나는 노래였습니다. 봉사하러 가서 마음을 위로받는 느낌이었습니다.

어르신들 모두 건강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 애 쓰셨습니다.

독자
광장



S-OIL MAGAZINE

Vol.404

2015 July

Quiz

두 사진 가운데 서로 다른 곳은 어디일까요?
(모두 다섯 군데)

•
지난호 퀴즈 당첨자

주유상품권

이현욱 탈황2과

이경학 안전과

김진은 품질관리2과

유경미 고객(경기도 광명시 광일로)

USB저장장치

임명국 정유과

임수빈 회계팀 임태순 사우 자녀

박도윤 고객(서울시 성북구 삼선교로)

이근형 포항유업주유소(경북 포항시 북구 소티재길)

이달의 엽서



<두런두런 수다방> S-OIL서포터즈 공장 견학
 공장 투어에 명소 방문까지, 서포터즈가 부럽습니다.
 _ 유세은(고객, 인천시 부평구 안남로)



<열정 24시> 사내 표창자 인터뷰
 회사를 위해 연구하고 노력해 좋은 성과를 얻은 분들이 대단하게 느껴졌습니다.
 _ 오효민(정유2과 오성환 시우 자녀)



<No.1 주유소> 광전충전소
 장기근속하는 직원들의 이야기와 그 이유를 흥미롭게 읽었습니다.
 _ 김정옥(성일주유소, 충남 논산시 연무읍 동안로)



<가족 이야기> 수소3과 최용관 시우 가족
 가족이 서로에게 보내는 메시지가 진전한 감동을 안겨줍니다.
 _ 송산리(고객, 서울시 도봉구 우이천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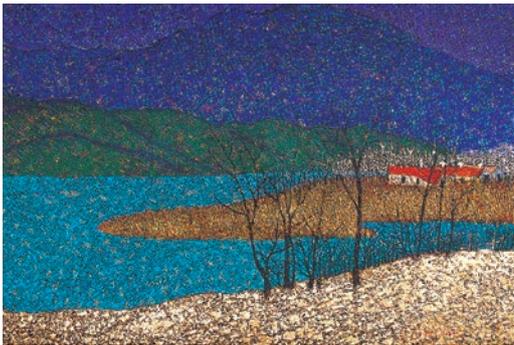


<내 마음의 미술관> 양평군립미술관
 미술관을 가까이하지 못했는데, 관련 정보가 유익했습니다.
 _ 박덕현(대구지사)



<열린 서재> 도서 '내 사람이다'
 책 정보에 더해 관련 영화 정보를 얻을 수 있어 좋았습니다.
 _ 김태현(분해2과 김원식 시우 자녀)

〈양수리 풍경〉



양수리를 아름다운 우리말로 바꾸면 두물머리다.
아침이면 뽀얀 물안개가 아련히 피어나서
고향 냄새를 풍기는 그곳 풍경을
차분히 마음에 그린다.